

速記界

第 36 號



大韓速記協會

■ 권두언 : 변화에 두려워말고 당당하게 맞서자 / 池大燮

■ 신년사 : 창의력에 날개의 닻을 달고 뛰자 / 최황수

■ Intersteno 소식

- IPRS of INTERSTENO & NCRA 100주년 기념회의 참석 및 일본속기협회방문보고서 / 김창지
- 1999 인터스테노 참관기 / 김영주

■ 인터뷰

- 담당상임위 베스트의원으로 뽑힌 김홍신 의원 / 장미경·조신자
- 김선옥 국회속기서기관

■ 특별기고 : 국회의원과 속기사 / 양선모

■ 논단 : 속기 채점기준에 관하여 / 韓東春

■ 세미나 : 제7회 99속기학술세미나 / 김덕진

■ 원로를 찾아서 : 동방식속기법 창안자 李東根선생

■ 단상 : 마카 고백한다 / 김선옥

■ 초점

- 속기계와 한글자막방송 / 김정동
- 속기보조용구 ICAN2000출시 / 편집실

■ 회원동산

- 북한산행 / 장미경
- 이 외로움은 어디에서 / 이순희
- 느낌에 대한 동경 / 김정아
- 시 : 북두칠성 / 송혜경

■ 지방의회 탐방 : 경기도 수원시의회를 찾아서 / 이시정

■ 편지요 : 친구에게 쓰는 편지 / 이화경

■ 자료파일

- 되돌아본 한국속기 50년 / 편집실
- 미국 상원에서 공식회의록을 발간하기까지 / Walter J. Stewart
- 국회본회의 회의록 단어사용 빈도수 / 유순태

■ 협회동정

■ 회원동정

■ 편집후기

변화에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



회장 지대섭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되지만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감회는 결코 예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우리가 가장 숨가쁘게 살아왔던 한 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기를 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는 우리에게 급격한 변화와 격동으로 점철된 세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 민족은 지구촌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축성장' 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우리는 지난 30여년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다시 지식·정보화사회로 도약해 왔으며, 이러한 물결은 새로운 세기에도 더 거대한 속도의 힘으로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速記界 역시 1948년 제헌국회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25전쟁으로 뜻하지 않은 수난을 겪기

도 했으며, 1955년 11월 대한속기학술협회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속기발전이 기대되는 듯 했으나 4·19와 5·16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와 함께 비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66년 12월 대한속기협회를 재건하여 현재까지 速記界는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 천년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단군 이래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오늘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속기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변화의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휩쓸리고 말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회원 여러분!

21세기에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도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속기인들이 보여준 슬기로운 끈기가 있다면 그 어떤 험한 파도도 헤치고 나가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천년의 速記界를 창조해 나갑시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국회의원)

창의력에 날개의 닳을 달고 뛰자

최 황 수(협회 이사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새천년을 맞아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 밀레니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격동과 고난이 20세기를 뒤로 하고 희망과 꿈으로 가득한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 밀레니엄'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구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보다 새로운 밀레니엄이라는 의미는 바로 새천년에 맞는 새로운 생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인터넷을 통한 지구촌 시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빌게이츠는 그의 저서 「생각의 속도(Business@The Speed of Thought)」에서 80년대가 質의 시대, 90년대가 리엔지니어링의 시대라면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보았습니다. 즉 21세기는 정보전달의 속도가 광속보다 빨라지고, 기업체·학교·가정에 디지털 신경망이 구축될 것이며, 앞으로 2·3년내에는 인터넷과 컴퓨터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방식, 가치관,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여 새로운 개념의 '웹 생활방식'이 폭넓게 보급되는 디지털 하부구조가 구축되므로, 세상의 변화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정보화 사회의 미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인들도 이러한 소용돌이속에 있음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정보화의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도 인류에게는 문명 초기부터 변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는데 이는 다름아닌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기록의 역할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있으며, 역사는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속기협회는 제 7회 속기학술세미나를 비롯하여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의회속기사부(IPRS)활동, 속기학술연구, 홈페이지 개설 등 여러 부문에 걸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속기협회의 100주년 기념을 겸한 인터스테노 행사는 우리도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스테노 회원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천년의 첫 해인 올해는 바로 이러한 준비를 하는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선 동북아권에 대한 교류를 새로운 차원에서 돈독히 하고 2002년 월드컵을 맞아 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한 속기인 모임체를 구성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인 것처럼 보이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격언 그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못이룰 일도 아닐 것입니다.

협회가 국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지 벌써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마다 국고사업에 걸맞는 사업개발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한 협회상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속기협회는 해방 이래 우리 나라 속기사들의 총본산으로서 기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로의 저변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보다 참신한 생각과 적극적인 발걸음으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협회 홈

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응전할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회원 모두가 새로운 정신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함은 물론 협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흔히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생각일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이제는 우리의 생각, 즉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창의력에 날개를 달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느 분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노력을 경주할 때 앞에서 선도하는 조직이 될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회원 여러분의 가정
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IPRS of INTERSTENO & NCRA 100주년기념회의 참석 및 일본속기협회방문 보고서

김 창 진



1. 기 간 : 1999. 7. 26(월) ~ 8. 7(토)

2. 장 소 : Boston, Massachusetts

3. 한국대표

- 김창진(협회 연구위원장, 속기2과4담당)
- 김영중(협회 재정부장, 속기주사)
- 김미라(협회 회원, 속기주사)
- 신종식(협회 회원, 대전시의회 속기사)

4. 참가국 및 참가위원

-20개국에서 1,907명 참가

아르헨티나(2), 오스트레일리아(6), 바하마(4), 발바도스(2), 서인도제

도(1), 카메룬(2), 캐나다(28), 체코공화국(2), 잉글랜드(5), 프랑스(2), 독일(3), 아일랜드(5), 자메이카(5), 일본(2), 한국(3), 네덜란드(3), 노르웨이(2), 푸에르토리코(2), 남아프리카공화국(1), 버진 아일랜드(5)

5. NCRA행사 내용

- NCRA 100주년기념행사
- 교육세미나(강사, 학생, 스코피스트 세미나 등)
- 특별교육프로그램(CSR/CCR workshop 등)
- 자격관련프로그램(CRI/CMRS/CRR 등)
- 친목활동(식전행사, 기념조찬회, 신·구회원 리셉션 등)
- 협회활동 및 특별행사(스피드·리얼타임 속기경기대회 등)
- 전시회(42개 booth에서 속기관련기계, 소프트웨어, 용품소개 및 판매)

6. IPRS 회의

- 1)차기 IPRS총회 개최국 및 시기 결정
 - 개최국 : 독일, 하노버
 - 시 기 : 2001년 7월 예정
- 2)IPRS Co-ordinator 선출
 - 현 IPRS Co-ordinator 인 Peter walker(영국) 임기만료
 - 차기 IPRS Co-ordinator로 Ronald G. Tremaine(캐나다) 선출

7. 주요활동

- 1)NCRA 100주년 기념 축하메세지 전달
 - 축하메세지를 영문작성하여 NCRA에 전달
 - 행사기간 중 각국에서 보내온 축하메세지를 게시판에 게시
 - * 일본, 중국은 영문·자국어로 2부 작성
- 2)NCRA 자료실 관람
 - 일시 : 7월28일 14:00
 - 장소 : Marriott Copley Hotel 4th Floor
 - NCRA Membership booth
 - 등록회원 명단 확인 및 정정

(김창진, 김영중, 김미라, 박희웅, 윤태원→신종식으로 정정)

·김점동, 김춘원, 한동춘, 동우속기사사무소 등의 회원등록 확인

-속기사 교육책자, 테이프 전시 및 판매 booth

·문법, 발음, 속도향상법, 자격실험연습서, 법원속기안내서, 속기실무 사례집 등

-Web site booth

·인터넷을 통한 협회활동 안내 및 홍보

3) Opening Reception 참석

-일시 : 7월 28일 19:00

-장소 : Boston Federal Courthouse

-주요 인사 면담

·Viki Akenhead-Ruiz : NCRA 회장

·Karl Gutzler 부부 : IPRS 사무 총장

·Peter Walker : IPRS Co-ordinator

·Pete Wacht : JCR(Journal of Court Reporting) 기자

·兼子次 : 일간공업신문 기자

·荒木 章: 교직원

·Judy Werlinger :Freelancer, Texas

·Deborah L. Dusseljee : Freelancer, Colombia

-Boston Federal 법정 참관 : Courthouse 7층

4) 속기경기대회 참관

-일시 : 7월 28~29일 10:00

-장소 : Marriott Copley Hotel Wellesley Room

-입상자 : National Realtime Competition

·1위 Mark Kislingbury 99.1%

·2위 J.Edward Varallo 99.4%

·3위 Karia Wollin Boye 95.4%

-입상자 : National Speed Competition ;

·1위 Karia Wollin Boye 99.286%

·2위 Wendy Shade 99.971%

·3위 Melanie Humphrey 97.423%

-Competition 참가자 먼담

·Nancy J. Hopp : Freelancer, Chicago

·Janet McHugh : Freelancer

·6중 이상의 속기기계 사용, 번문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발달된 상태

·개인별로 약어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오류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 교정됨

·출제 문장 중 난해한 전문용어는 사전에 알려 줌(약어등록)

·5분간 200words/1min 속도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접 낭독함

·속기와 동시에 컴퓨터에 자동 번문되는 시스템

·개인 ID를 이용, 각자 아스키 파일로 저장하고 낭독종료와 동시에 시험종료, 퇴장

5)Star Spangled Brunch 참석

-일시 : 7월 29일 11:00

-장소 : Marriott Copley Hotel Grand Ballroom

-참석자와 환담

·Kathleen L. McCarthy : 법정속기 프리랜서

-MAHANEY REPORTING SERVICES(Kathleen L. McCarthy 소속 회사 방문(Kingston street 소재)

·steno 시범 작업 참관

·법원에서 교부된 철인을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날인 견본입수)

·속기기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성능은 대동소이

·steno는 software를 포함하여 \$1,000 내외

·연습은 최소 6개월 이상 전력투구(crazy)해야 하며 속기학교는 2년, 4년제

·CSR(Certified Shorthand Reporter-220words/1min, 정확도 95%)을 취득해야 속기사 활동 가능

·프리랜서는 대부분 재택 근무를 하며 원고 작성은 평균 1주일이 소요되는 모델을 통해 체크(보통 주급)

·원고작성료는 페이지당 \$3.50이며 익일원고일 경우 \$7.0로 계산함

·일반적으로 Officer는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프리랜서는 일한 만큼의 보수를 원하는 층이 선호함

※Professional Certification

RPR(Registered Professional Reporter)

RMR(Registered Merit Reporter)

RDR(Registered Diplomat Reporter)

CRP(Certified Realtime Reporter)

CMRS(Certified Manager of Reporting Service Institute)

CRI(Certified Reporting Instructor)

CLVS(Certified Legal Video Specialist)

CSR

Scopist

6)Old-Timers/First-Timers

Reception 참석

-일시 : 7월29일 18:30

-장소 : Westin Hotel Essex Center

-참석자와 환담

·Viki Akenhead-Ruiz : NCRA 회장

·Peter Wacht : JCR(Journal of Court Reporting) 기자

·Fran 부부 : Freelancer, Virginia

7)Centennial Breakfast 참석

-일시 : 7월 30일 08:30

-장소 : Westin Hotel America Ballroom

-참가자 대부분이 참석한 초대형 행사였음

-특별초청연사의 연설 청취

·연사 : NBC 뉴스 앵커우먼, Ann(일본계 미국인)

·내용 : 역경속에서 여성으로서 앵커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사람간의 Relationship 및 주변과의 Harmony를 강조

-선물전달 및 기념촬영

·Ann : 초청 연사, NBC 뉴스 앵커우먼

·Viki Akenhead-Ruiz : NCRA 회장

·Ronald G. Tremaine : 차기 IPRS Co-ordinator(캐나다)

·기타 스탭들

8)IPRS, NCRA Joint Forum 참석

-일시 : 7월 30일 11:00

-장소 : Marriott Copley Hotel Wellesley Room

-참석자 : 39인

-사회 : Peter Walker(IPRS Co-ordinator)

-주제 : Parliament and the millennium

·Recruitment, Training, Real time,CAT, Caption system 및 Tape-recorder, Pen-machine writer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과 자연스러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

·대한속기협회 및 국회회의록 발간현황 소개

9)IPRS Meeting 참석

-일시 : 7월30일 14:00

-장소 : Marriott Copley Hotel Wellesley Room

-참석자 : 20인

-사회 : Peter Walker(IPRS Co-ordinator)

-의제 : 차기 IPRS총회 시기·장소결정 및 Co-ordinator 선출의 건

·차기 IPRS총회를 독일, 하노버에서 2001년에 개최하기로 결정

·차기 IPRS Co-ordinator로 Ronald G. Tremaine(캐나다)선출

·기타사항시간에 스코틀랜드 의회 회의록발간 과정에 대한소개 자료 사회자가 대신 발표

·Pen writer system에서 "Machine system 으로 전환한 나라들의 체험담을 듣고 싶다"고 질문하였고 "삼사년전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캐나다 대표의 대답에 이어서 "10년정도의 장기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회자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

-차기 IPRS Co-ordinator인 Ronald G. Tremaine과 단독 면담내용

·캐나다 의회는 상원 105명, 하원 305명, 17개 위원회 5개 특위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회 회의장은 7개이며 회의록은 영어 프랑스어 2종으로 발간

·의원은 여러 위원회에 보임되며 많은 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되면 prat

time 속기사를 활용(1일 \$300, 60페이지 초과시 페이지 당 \$5.50 추가 지급)하는데 회의장 수가 제한되어 있고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

·과거 상원의 회의록발간 직원수는 총 23명으로 shorthand writer 12명(영어 8명, 불어4명), 영어 transcriber 8명, editor 3명(영어 2명, 불어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속기사의 남녀 구성비는 영어 4대 4, 불어 1대 3이었음

·shorthand writer는 1991~1994년 사이에 전원 기계속기사로 교체되었는데 이때 transcriber 8명 전원, editor 1명, shorthand writer 2명이 감원되었음

·현재의 총 직원수는 15명으로 기계속기사 12명(영어 8명, 불어 4명), editor 3명(영어 2명, 불어 1명)으로 구조조정됨

·구조조정 당시 수필속기사에게 세 종류의 선택사항이 제시되었음

첫째, Retraining skill : 계속 업무 수행하며 6개월간 훈련기간을 줌(42세, 45세, 48세 의 속기사 3명이 시도-영어 2명, 불어 1명-하였으나 모두 실패)

둘째, Redeployment : 동일한 보수의 임금 동결을 전제로 타업무에 재고용

셋째, Resign(quiting) : 의원면직(100days, a week salary for each year, 재취업 훈련비\$2,000 지급 등 몇 개 패키지 제시)

·구조조정의 목적은 예산절감이었으며 회의록의 신속발간과는 무관하였음

·관련자료(약 15페이지 분량)우송하기로 약속함

·회의록 제공은 모든 회의록 공히 특별한 경우 익일 제공하고 통상적인 경우 약 20일 후 발간함

10)일본속기협회 방문

-일시 : 8월7일 10:00

-장소 : 일본속기협회 사무실 (TBR빌딩)

-참석자

·한국 : 4인

·坂本 清 : 일본속기협회 이사장

- 佐佐木 光子: 동경속기사회 부회장
- 津島 靖子: 중의원기록부 속기사
- 荒木 坂: 교직원
- 중의원회의록 발간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회의록 공히 특별한 경우 익일 발간하고 통상적인 경우 약 20일 후 발간함
- 그동안 회의록신속발간은 문제되지 않았으며 최근 의원으로부터 신속 발간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기계속기는 현재 새로운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며 현재는 신속발간에 도움이 되지 않아(反譯 문제 등) 의회에의 도입은 검토되지 않고 있음
- 소위원회는 우리의 특별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운영되는데 전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 비율은 약 10대 1정도임
- 회의는 일반적으로 09~19시 사이에 진행되는데 회의장 수가 제한되어 있고 특정시기에 회의가 집중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한 편은 아님
- 속기사의 남녀 구성비는 남자우위이나 여자의 수가 증가 추세이며 여자속기사의 경우 결혼 후 근무가 제약 되고 있음
- 속기협회는 Intersteno 참가비 지원을 하지 않으며 2001년 하노버총회에도 자비로 참가를 계획하고 있었음

11)시가지 및 명소 탐방

- 뉴욕 시가지 및 Flushing 한인타운, 배터리 파크 한국전쟁기념비, 자유의 여신상, 성 토마스성당,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세트럴 파크 등
- Public library, Christian science church, MIT공대, harvard univ. 및 보스톤 시가지·근교 주택가와 Plimoth 원주민 마을, 메이플라이워호, WAX박물관, Lexington등 근교 유적지
- 산타모니카 폴 게티 뮤지엄, 네바다주 후버댐, 샌디에고 sea world, 할리우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및 L.A. 시가지·근교 주택가 등
- 동경 시가지 및 중의원 청사,황궁, 히비야 공원, 국제수족관 등

8.성과

1) 한국의 속기현황 발표 및 토론 참가

- IPRS, NCRA Joint Forum에 참석, 대한속기협회와 국회회의록 발간 현황 소개
- IPRS Meeting에 참석, 수필속기사의 기계속기사로의 전환문제 관련 토론에 참가
- 각국 참가자의 의견 청취

2) 선진적인 행사 진행과정 및 프로그램 경험

- 세미나, 이벤트, 전시회, 경기대회, 리셉션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경험
- 회원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 하에 대규모 행사의 빈틈없는 진행 확인

3) 속기 관련 정보교류

- 속기관 관련 도서수집
 - 세미나 자료 : 「Members Forum」 외 20권
 - 잡지 : 「JCR(Journal Court Reporting)」 1999sus 7~8월호 「일본 속기」 1999년 1, 2, 7월호
 - 단행본 : 「일본속기100년사」 「속기와 정보사회」, 「속기 과학」
 - 논문 : 「逐語記錄의 사실성에 관한 고찰」
 - 회의록 : 스코틀랜드 의회회의록 1차분
 - 기타 Catalog : 「참의원사무국」 기타 속기관 관련 팸플렛다수
- 각국 의회회의록 및 속기계 현황 청취
 - 캐나다, 일본 및 스코틀랜드 의회회의록 발간현황
 - 기타 각국 속기계 현황
- 미국 속기사무소 및 일본 속기 협회 방문

4) 각국 속기인 교류 확대 및 홍보

- 각국 속기관계인 연락처 확보
 - 미국 Viki Akenhead-Ruiz : NCRA 회장
 - Pete Wacht : JCR(Journal of Cout Reporting)기자
 - Judy Werlinger : Freelancer, Texas
 - Nancy J. Hopp : Freelancer, Chicago
 - Janet McHugh : Freelancer
 - Kathleen L. McCarthy : 속기사무소 소속 속기사

Fran 부부 : Freelancer, Verginia

·일본

坂本 清 : 일본속기협회 이사장

佐佐木 光子: 동경속기사회 부회장

津島 靖子: 중의원기록부 속기사

荒木 坂: 교직원

·독일 Karl Gutzler 부부 : Intersteno 사무총장

·영국 Peter Walker : IPRS Co-ordinator

·캐나다 Ronald G. Tremaine : 차기 IPRS Co-ordinator

·콜롬비아 Deborah L. Dusseljee : Freelancer

-홍보물 배포

·인쇄물 : 속기계 제 34·35호 한국속기50년사 영문·일문판 한국소
개척자(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발간)

·공예품 : 책갈피(한국전통문양), 엽서, 복주머니, 거울 등

5)속기인의 자질 향상

-국제행사 참가에 의해 견문을 넓힘으로써 속기인의 자질향상에 기여

9.건의사항

1)NCRA회원가입 및 잡지 정기구독

-NCRA회원가입 권장 및 「JCR」, 「일본속기」 등 잡지의 정기구독
으로 선진 속기계의 현황과 제도의 신속한 파악

2)속기사 자격시험의 협회 주관 및 관련 세미나 개최방안 강구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속기사 자격시험을 대한속기협회 주관하에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격 유형의 다양화와 그에 관련된
세미나를 협회에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3)속기관련 국제행사 참여의 질적 양적 확대방안 강구

-INTERSTENO 이외에 NCRA등 선진 속기관련 행사에 참여 할 수 있
는 방안 강구

-참가 경비는 국고의 확대에 의존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자비 부담을 가
미하는 방법으로 참여기회와 참여자 수 확대 필요

(국회사무처 속기2과2담당)

NCRA(National Court Reporters Association) 에 대하여

NCRA는 법정기록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전국속기사연맹이라는 이름으로 1899년에 설립되었다.

NCRA의 현재 회원은 재판과정의 세세한 기록을 책임지는 법원속기사와 자유직속기사 그리고 Captioners까지를 포함해서 3만1,000명에 이르고 있다.

NCRA는 법정기록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은 물론 공급기관, 판사, 변호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익을 담당해 왔다.

NCRA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미 교육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인 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 NCRA의 설립목적과 활동

가. JCR(The Journal of Court Reporting)

132페이지의 월간잡지로서 회원들의 일상업무를 돕고 전문·시사사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넓혀 주는 기사들로 짜여져 있다.

나. 총회와 학술세미나

NCRA의 정기총회와 연중 세미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분야에 관한 지식 습득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

다. 회원관리와 정보센터

NCRA는 교재와 테이프에 대한 주문과 교육과정 등록, 회원증 발급, 협회안내, 상담 등등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정보센터의 담당자는 상담자들의 전화를 이리 저리 돌리거나 다시 거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질문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훈련되어져 있다.

평균 1주일에 1,000통이 넘는 전화를 받고 있다.

2. 속기사로서의 직업윤리

속기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의식은 공공기관과 변호사, 판사와 회원들간

의 도덕적 관계를 명확히 해 주고, 일반인들에게 회의록을 제공함에 있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 정보제공

NCRA의 정보시스템과 기술부는 법정속기사들에게 기술상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최신의 컴퓨터번문시스템 정보를 포함하여 법정소송 속기록, 법정에서 이용된 오디오, 비디오에 관한 기사 그리고 미래의 완전 컴퓨터화된 법정에 대한 정보등이 포함된다.

4. 전문자격증

NCRA 소속 회원들은 그들의 경력 혹은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단계별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Registered Professional Reporter(RPR)

NCRA 소속 회원중 절반 이상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1년에 두 번 실시되는 속기 시험과 교양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데 속도는 1분간 225단어 수준이다.

나. Registered Merit Report(RMR)

RPR과 유사한 시험과정을 거치는데 속도는 1분간 260 단어 수준이다.

다. Registerde Diplomate Reporter(RDR)

RDR은 속기사들이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야 획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테스트 하는 교양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법정속기사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는데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의 엄격함이나 회원들을 위한 계속적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우리 협회로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다.

- 편집자 주 -

1999 인터스테노 참관기

김 영 중

프롤로그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두서가 잡히지 않는다.

맨 처음 왜 내가 불쑥 신청을 하게 됐는지부터 거슬러 생각해 보면 너무 길고 지루할 것이기에 각설하고, 출발 당일부터 시작해야 좋을 듯 싶다.

딱 한 가지, 우리들의 여행(?)이 시종일관 분치기·초치기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나머지 셋보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딱 한 분께 뒤늦게나마 죄송했음을 이제사 감히 밝힌다.

일어나 시계를 보니 6시.

올 것 같이 앓던 잠이 든 것이 아마 새벽 두세시경이었다면 한 서너 시간 폭 잔 셈이 된다. 잠 안 자고 버터 보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두편이나 빌렸건만 12시도 못 넘기고 한 남자는 잠이 들고 신중식씨와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까지 다 보고야 말았다.

짐을 챙기고 방문을 닫고 나오면서 아, 정말 드디어 가나보다 생각하니 잠든 상원이(아들네미)를 깨워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충동이 인다. 하지만 잠자는 녀석의 이마에 담백 사랑을 담아 세 번 뽀뽀를 해 주었다.

요이 땅!

아직은 조금 낮이 선 신중식씨와 너무나 낮이 익은 박종희씨와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김포공항 국제 2청사에 도착하니 7시45분.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하게 도착했다고 생각하면서 약속한 장소인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빵실거리며 서있는 미라가 보인다.

거의 1.2분후 김창진단장님까지 도착하자 잠시 긴장이 되면서 가슴이 뛰

기 시작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공항이용로와 관광진흥세까지 내고 이제는 떠나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오자 갑자기 아침도 안 먹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간단하게 음료와빵을 사먹는 여유도 생겼다.

뜻밖에 나오신 최황수 이사장님의 환송에 그야말로 황송해 하면서 탑승수속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념사진도 찍었다. TV 연속극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뉴욕행 KE002에 올라타니 마냥 즐거워져서 마치 수학여행을 떠나는 여고생이 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뒷좌석의 김계장님은 13시간의 금연에 미리부터 맥빠져 보였고 신종식씨는 진지함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미라와 나는 잠자야 된다는 핑계로 와인도 훌쩍훌쩍 마시고 구름 위에 등실 떠 있었다.

제목도 다 잊어버렸지만 꽤 재미있는 영화도 한 편 보고 드라마게임도 한 편 보았는데 아직도 멀기만 한 땅, 미국... 이렇게 한없이 날아왔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못한 미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너무나 막막하게 다가왔다. 나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불안함과 함께.

드디어,

이제 곧 JFK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은 아마 미국과의 첫번째 대면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리라. 그 황홀한 긴장감 속에서 혹시 서길천선배님이 안 나오시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심히 궁리하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입국심사대 혹은 심사장.

뉴욕의 아니, 미국이란 나라의 입국 심사는 그 절차보다는 분위기로 모든 입국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는데 동양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나는 갑자기 자존심이 몽개짐을 느꼈지만 과잉반응은 금물이라고 마음을 돌렸다. 암튼 우리 일행은 통과다!!!

자유의 땅, 뉴욕

뉴욕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기에 서길천선배님을 공항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자유의 여신상도,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도 쉽게

가 볼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자유의 여신께 감사기도라도 할 만큼 고마운 일이다. 대 선배님 덕분에(더 정확히 말해서 김창진계장님 덕분에?) 1박2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것 이상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비록 뉴욕의 매력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풍성한 소득이 있었다.

특히 토마스성당(1시간이 넘게 성페트릭성당을 찾아 헤매다가 이 성당을 보고 페트릭성당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던). 이 성당은 내게 충격 그 자체였다. 神의 존재에 대해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종교적 삶에 대해 고개 들었던 지난날을 한꺼번에 부정하게 해 준, 그래서 어쩌면 이번 내 여행의 알맹이는 바로 이 토마스성당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거창한 이름에 비해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했던 베스트웨스턴프레지던트호텔을 뒤로 하고 후로싱이라는 한인타운으로 갔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맛있는 설렁탕과 음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금강산」을 떠올리며 「우래옥」에 자리잡았다. 역시 서울 못지 않게 감칠맛 나는 음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 주었다.

JFK공항 5번 터미널에 도착하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서길천선배님의 그 사람좋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제 뉴욕과는 이별이다. 불과 하룻만에 오래 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속기인들만의 남다른 情 때문이 아닐까...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니 어제 느꼈던 이곳에서의 무시무시함도 누그러지는 듯하다.

TWA항공을 이용해 Boston行 비행기표를 받아 들고 화장실에 들렀을 때의 황당함이란...! 아마도 약물 소지자 내지는 이용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인 듯 밑으로도 위로도 횡하게 돌려 있어 익숙치 않은 나로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도 비행기 탑승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기회는 찬스라고 미러와 나는 또 TWA라는 항공사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마침내 네 사람이 단체 사진도 찍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36번 게이트에 가서 기다리는데 전광판이 계속 깜박거리고 있고 26번 게이트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알고 보니 게이트가 바뀐 것이었다. 오히려 한참을 기다려서 올라탄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거짓말 같은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장 2시간의 연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오후 5시 35분 비행기가 7시40분경에야 겨우 출발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는 아름다움으로 반짝이는 보스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간은 벌써 9시 10분.여기가 바로 보스톤 여기가 바로 보스톤이구나 하고 창 밖을 내려다 보는 순간 초가을 코스모스처럼, 그렇게 청초하고 아름다운 항구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공항을 빠져 나오자 어둠 속에서도 단정한 자태의 건물들이 우리 일행을 정중히 맞이해 주었다. 친절함 택시기사 아저씨도 보스톤의 첫인상을 장식 하는데 일조를 하기에 충분했다.

매리오프코플레이플레이스호텔은 역시 값이 말해 주듯이 화려하기보다는 고급스러운 호텔이었는데 김창진 계장님 특별배려 차원에서 스모킹룸(3610호실)으로 했다. 그 덕분에 미라와 나도 담배냄새가 배어나는 36층의 35호실에 묵게 되었다.

대강 짐을 풀고 창문 밖을 내다보니 너무도 가지런히 정돈된 시가지가 눈앞에 펼쳐져 또 한번 기분이 좋았다. "보스톤이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마냥 행복해 했다.

게다가 인터넷을 뒤지며 알아낸 푸르덴셜스카이워크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은가 말이다. 야호!

편안한 잠에서 깨어나니 정겨운 풍경이 산책을 나가지 않고는 못견디게 만든다.

Let's go!!!

호텔문을 나서서 몇 발자욱 가지도 않아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감탄사만 계속 연발했다. 오래된 교회와 놀이터, 그리고 공원보다 이쁘게 가꾸어진 거리의 나무와 꽃과 깨끗함이 어우러져 그림보다 멋진 주택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내 맘에 꼭 드는 마을이 이곳에 있구나" 생각하니 가슴 저 밑에서 부터 부러움이 싹튼다.

'이크!' 우리가 너무 여유를 부린게 아닐까? 9시에 출발예정인 Plimouth Plantation Tour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이다. 9시 출발인데 그 때까지 티켓도 받지 않은 우리는 서둘러 3층의 M.I.T Room으로 내려 갔다. 이미 시계는 8시40분을 넘어가고 있었고 다행히 NCRA의 SUE와 Emily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니 고맙게도 Emily가 서둘러 티켓을 찾아 주었다. Brush Hill Tour라고 크게 써여진 버스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탄 시간은 물론 정각 9시. 우리에게 결코 지각이란 있을 수 없다.

Plimouth Plantation Tour

가이드의 안내를 잘 알아 듣지도 못하면서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 것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이 낮설지 않고 친근하다는 점과 무조건 좋아 보이기만 하는 보스톤에 대한 인상도 한 몫을 했다.

우리의 민속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필라마우쓰플랜테이션을 구경하고 나서 잠시 관광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메이플라워호가 있다는 항구를 가보기로 했다. 그야말로 007작전이 따로 없었다. 전화로 택시를 탔고 메이플라워 앞에서 사진 찍으라 바다구경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퐁!퐁!퐁!' 연속 샷터를 눌러대면서도 저편 언덕 위에 있는 Wax, Museum을 놓칠 리 없는 욕심꾸러기들.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어느새 약속한 시간(13시15분)이 다 되었다. 그래야만 13시25분에 다시 태우러 오기로 한 Brush Hill Tour사의 버스를 탈 수 있는 시간이기에 택시를 기다리는 일이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긴 시간처럼 여겨졌다. 어쨌든 택시는 왔고 Brush Hill Tour버스가 기다리는 버스 주차장에 도착하니 13시27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정된 출발시간은 13시35분이었기에 우리의 시간활용은 끔찍할 만큼 정확했다고 자부한다. 점심도 못 먹었지만 갖다오길 너무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희희낙낙하던 우리는 잠시 후 아연실색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태운 관광버스가 바로 그 곳(메이플라워호가 있는 곳)으로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유쾌한 웃음으로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여행이 주는 기쁨 때문이었으리라. 갑자기 넉넉히 주어진 시간으로 모처럼 맛있는 점심을 즐기려했지만 관광지인지라 썩 괜찮은 음식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예의 하던 대로 햄버거와 같은 스낵류로 해결하게 되었다. 아이스크림과 콜라가 곁들여진 푸짐한 점심식사였다고나 할까? 지금 생각해도 저절로 웃음이 난다.

뭐니뭐니해도 힘들 때는 잠이 최고인가 보다.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는 것도 귀찮아진 우리는 비상식량(서울서부터 동행한 햇반과 육개장)과 아침 산책길에 SevenEleven에서 사온 사과와 우유 바나나 등으로 최고급 만찬을 준비했다.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미라가

버드와이저 운운했다. 아까 버스 안에서 본 곳이 있다면서...

밤 늦은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수없이 본 미라와 나였지만 보스턴에 대한 믿음(?)이 너무도 강해 우리는 겁도 없이 호텔을 나섰고 계장님과 종식씨는 그런 우리 둘을 말리지도 않으셨다. 적당히 바람이 불어 더위도 가신 시내 거리는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았다.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임을 깨닫고 호텔로 돌아오니 호텔 1층에 챔피언스라는 호프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은가?

'야호호!' 기분 좋은 밤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7월28일 (수요일)

오늘 아침은 전에 없이 우아하게 룸서비스를 받았다. 연분홍 장미꽃이 함께 서비스된 아침 식탁을 보니 공연히 가슴이 뿌듯했다.(비록 이인분으로 네 분이 먹었지만...)

간단한 시내Tour를 마치고 4층의 NCRA Centennial Park에 갔다. 그곳은 행사등록과 관련된 지원업무 및 전시회·교재판매·기타 등등이 총망라된 곳이었다. 그 동안 우리하고 E-mail을 주고 받은 메를린던트를 만나 앞으로 세미나 기간 동안 그녀의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했다. 우리가 가져온 100주년 기념축사를 안내판 제일 한 가운데에 붙여놓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협회 회장인 VICKY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메를린던트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참으로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이들의 행사진행에 감탄을 하면서 예약된 우리들의 등록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 오는데 한 동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한국..." 바로 일본에서 온 아라키상이었다.

1층 로비로 오니 가네꼬상(작년에 우리 국회사무처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일본 공업신문기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우리 말과 영어·일어·한자가 뒤섞인 대화가 거의 사오십분 계속되었는데 가네꼬상은 우리가 《속기50년사》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우송료 50불과 함께 거둬 보냈으며,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아라키상은 우리들의 일본 방문계획을 알고 메모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우리와 비슷한 외모를 한 동양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웠으며 더욱

이 속기로 인한 만남이었기에 서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위소텔이라는 곳에 묵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일본인을 보며 그들의 검소함이 존경스러웠다.

저녁 6시. Openning Reception이 열리는 Old Court House로 출발, 도착하니 어여쁜 소년들이 복치고 장고치며, 우리 일행을 환영한다. 폼나게 사진을 찍으려 했던 우리는 행사장 입구에서 카메라를 압수 당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놀랄 만큼 많은 속기사들이 모여 그들 협회의 미국 법정속기협회(NCRA)100주년 기념식을 자축했으며 저명인사들의 축하메시지가 속속 도착했다.

그들에게 태평양을 건너 저 멀리 KOREA에서 온 속기사는 어떻게 비쳐질까? 행사의 규모와 언어 그런 따위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한쪽 구석에서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였다. NCRA의 저널인 JCR의 기자인 PETE는 우리 일행을 먼저 찾아와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우리를 놀라게 했다.

협회 회장인 VICKY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또한 INTERSTENO사무총장인 Dr. Karl Gutzler부부와도 첫 인사를 했다. 특히 Judy와의 만남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아주 활발한 성격의 그녀는 어디를 가도 대인기였다.

행사 중간, 7층에 있는 한 법정을 참관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규모도 작았고 소박하면서 기능 위주로 꾸며져 있어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였다.

100번째 생일케익치고는 너무나 작고 양증맞은 기념케익(딱 한입크기임)을 하나씩 받아들고 숙소로 돌아오니 먹은 것은 다 어디가고 배가 고팠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컵라면과 과일에 커피까지 마시면서 수다(?)까지 곁들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

아무래도 내일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야 할 듯하다. 내일부터는 바빠질 테니까.

7월29일 (목요일)

아침부터 서둘러 일과가 시작되었다.

우선 4층에 들러 회원명부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워낙 인원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인지 알파벳순으로 정리 해 놓은 책이 열권도 넘었다. 우리는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보고 이

를 놓칠새라 얼른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우리들의 매력 포인트인 신종식 씨의 이름도 써넣었다.

잠간의 틈을 이용해서 머핀과 커피를 먹은 후 Wellesely Hall로 갔다. NCRA로서도 Real time 속기경기대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는데 경기에 참가하려면 할 수 없는 우리는 미리 주최측에 참관을 부탁해 놓은 터였다. 기대감에 부푼 탓인지 일본에서 온 가네꼬상과 아리키상도 약간은 들떠 보였고 실제 속기경기대회 참가자들보다 우리가 더 떨고 있었다.

긴장이 될 법도 한데 여유만만한 그들의 모습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웅성거리던 Wellesely Hall이 순간 조용해 진 것은 경기시작 불과 일이분전이었다.

시험 직전에 지극히 전문적이고, 최신조어라 여겨지는 대여섯개의 단어를 칠판에 적어 주고 는 이내 지웠는데 각자 약어를 만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덕분에 환경관련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천사가 주신 두 장의 초대권이 있었으므로 7월30일 금요일 아침 Centennial Breakfast에 초대했다.

-다음 37호를 기대해 주세요-

(국회사무처 속기2과,
협회 재정부장)

투고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와 힘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속기과) (02) 788~2373, 2473
내 용 : 표지그림·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회상기, 수필,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담당상임위 베스트의원으로 뽑힌 김홍신 의원

인터뷰·기록 : 장미경·조신자



1999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6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요즘 3년 연속 언론에서 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베스트의원으로 뽑힌 김홍신 의원을 만나보았다.

"국민을 신나게 해주고 싶어서 작가의 신분에서 벗어나 정치에 입문했다"는 작은 거인 김홍신 의원! 평소의 신념대로 지난 4년 동안 항상 서민의 편에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신선함과 개혁적 이미지를 더하고 있는 김 의원과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회의록을 보면 말하는 사람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어

■金洪信 의원님께서서는 전부터 속기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처음속기를 알게 된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는 중에 옆에 어떤 남자분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분이 속기사였는지 속기로 쓴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처음 속기를 보았지요. 제가 글을 쓴다고 하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을 쓰는 사람은 속기를

꼭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게 하고 싶은 말과 그 분의 이름, 연락처를 써주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분의 말을 들어서 속기를 배웠더라면 글 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말하는 것보다 받아쓰지 못하지만 다시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후회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분이 상주양반이었는데 그때 30대 초반으로 보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60대 초반쯤 되셨을 것이에요.

■<인간시장><해방영장>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였을 때의 모습에서 벗어나 정치인이 되시고 난 뒤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인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밖에서 보았을 때에는 저도 대책 없이 모두 싸잡아서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보니까 실제로 일은 무척 많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그 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 즉 公人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사용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세는 포기하고 권위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권위를 강화해야 되느냐 하면 국회라는 것은 국민대표자회의의 준말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하지만, 즉 정치인이 누리는 권력과 세력은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치를 해보시니까 전에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시던가요?

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있을 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국민들이 대개 직위만 봐주십니다. 그런데 실제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격문제인데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민이 요구하는 기본인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겠지요.

■**金의원님은 국민들의 눈에 개혁적 이미지가 아주 강하면서도 서민적인 정치인으로 비칩니다. 정치를 하시면서 특별히 내세우시는 정치철학이나 신념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을 신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을 무엇으로 신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거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인들이 비판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회의록을 보시면서 평소에 느끼신 점이나 회의록의 역사적 의미, 중요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록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회의록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장관이나 행정부 관료들의 답변이 뒤바뀌었을 때 그에 반박할 근거로서는 회의록을 자주 이용합니다. 회의록만큼 정확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토씨 하나하나에 말하는 사람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회의장에서 메모는 늘 하지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빨리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속기사들을 괴롭힌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웃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인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에게 꼭 기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1가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99번 실패하고 100번째 성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 한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실패한 기록을 남겨주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실패의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패기록을 솔직하게 남겨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속기사는 회의에 나온 언어를 활자화하는 과정의 전문가

■회의록 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속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여러부분에서 진행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속기사는 그중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속기를 전문인으로 대하지 않고 단순기능인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을 많이 써보아서 잘 아는데 속기업무는 중노동입니다. 속기사들은 회의장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회의진행요원으로서 그 회의에 나온 '언어를 활자화하는 과정의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의원님께서서는 평소 속기사나 입법부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 예로 국회보(99년도 8월호)에 국회사무처의 미래형 청사진을 제시하시면서 '속기사의 과중한 업무의 효율화 및 자동분석기등 개발촉진'이라는 건의 사항을 말씀 하기도 하셨는데 속기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요?

저는 국회에 와서 속기업무를 단순노동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조직이나 각 분야에서 밑에서부터 업무를 습득한 사람들이 점점 단계를 밟고 올라가 그 분야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차 장 등 윗분들한테 "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다. 전체가 순환보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무총장직도 외부인사가 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직원이라면 젊었을 때부터 모든 업무를 배우고 두루 거쳐와서 그야말로 국회의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국회에 또 들어오게 된다면 4년 동안 싸워서 안 된 것들, 예를 들면 의원전용 출입구인 현관을 직원·내방객에게 완전개방하는 문제, 의원전용 사우나시설을 폐쇄하는 문제, 순환보직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싸

워보겠습니다.

■3년 연속 언론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베스트의원으로 뽑힐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국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수많은 자료들은 어떻게 수집하시나요?

각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저희 방으로 실습생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들도 많지만 기본자료는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자료에는 A사항을, 저 자료에서는 B사항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아귀를 맞추어서 증거자료들을 만드는데, 마치 퍼즐게임하는 식이지요.

모든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 준비하신 자료를 저희 속기사들에게 주신다면 회의록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데 가끔 협조요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을 다 소화하려면 자연스럽게 말을 빨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회의록이 급할 때 이쪽에서 빨리 요구하려면 아무래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에는 어순과 말의 구가 안 맞을 때나 판단착오로 잘못 읽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그것이 다 고쳐져 있더라구요. 그럴 때 속기사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모두 한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하시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에 비추어 비겁하게는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위원으로서 적어도 국민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된다는 신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처음보다는 확실히 깨끗해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밖에 인권문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 어떠한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외로운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더군요. 매년 한 권씩 책 펴내는 국회의원

■현직 속기사 중 80% 이상이 여성속기사들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신다면?

저는 여성들이 섬세하고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 파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장의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넣고요 한다고 하면 남성의 경우 아마 기침소리까지 다 넣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성의 경우에 그럴 경우 기침소리를 안 넣고 쉼표를 한다거나 마침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의 인식에 있어서 여성속기사들이 훨씬 뛰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성잡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 여직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됐다고 하면 그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아마 남성보다 훨씬 잘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업디자인·컴퓨터산업·애니메이션·카피라이터·홍보분야 같은 곳은 여성들이 감당 못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감각으로 활동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을 왜 거기에만 묶어둡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도 서구사회처럼 능력 중심으로 대우받는 환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아직 부족하지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잊지 못할 사건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저 때문에 늘 괴로웠지요. 아이들 엄마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도 다 저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면 작년의 백신문제와 올해의 장애인 불임시술문제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고기식용합법화분제도 사실 제가 2년동안 준비해 온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뒤집어쓰자는 심정으로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여성들과 젊은 사람들은 전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쪽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고 하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일파·매국노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서 국립묘지에 가 있는 것을 파헤친 문제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데 공개되지 않은 압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999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00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의원님의 희망이나 새로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뉴밀레니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하는데 저는 늘 겸손하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글쓰는 사람으로서 해마다 책을 꼭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등원한 첫해부터 올해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년에도 꼭 지키겠습니다.

■끝으로 속기사들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속기사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기능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싸워 달라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들과 앞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단결하여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국회속기서기관

인터뷰·기록 : 서 현 숙

국회에 사상 첫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국회 속기2과의 김선옥 서기관!

지난 95년 '국회사무처 최초의 여성사무관'으로 그때에도 '최초'로 주목을 받았던 김사무관은 이번 2000년 1월 1일 국회사무처 간부급 주요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또다시 '최초의 여성 서기관'으로서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유달리 보수적이고 금녀의 벽이 두꺼웠던 국회에서 내부승진으로 여성서기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지 커다란 기대를 가져보면서 김서기관을 만나보았다.

■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회여성공무원 최초의 서기관이 되신 소감은?

감사합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책임감이랄까 어떤 중압감이 앞섭니다. 그리고 앞서 서기관이 되신 분들에 비해 빨리 이 자리에 온 건 주위분들의 배려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고요.

■ 국회사무처 내 최초로 여성 서기관이 되셨는데 혹시 일하는 데 고충은 없으십니까?

일하는 고충은 아직은 느낄 겨를이 없었고 남보다 조금 앞서 간다는 건 외로움과 고독을 수반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은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70년대엔 승진서열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데 비해 이번엔 여성이라는 덕을 본 건 아닌가 싶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 그렇다면 본인이 여성이라서 느낄 수 있었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돌이켜 보면 제가 30대였을 때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의 황금기여야 할 30대를 어떻게 보냈나 생각해 보니 두 아이의 육아라는 중대사가 있었더군요. 그것은 한 여성으로서는 가장 보람있는 일이지만 직장인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 개인적으로 속기업무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근과 끈기가 없으면 속기인이 될 수 없듯이 속기의 매력은 은근과 끈기 이겠지요?

■ 만약 속기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지금쯤 아마 원장수녀님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 대학원에 진학,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전부터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 이때다 싶어서 대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정기국회예다 뭐다 정말 시간이 부족하더군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전공하고 있어요.

■ 협회 이사로서 속기계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협회에서도 제가 최초의 여성 이사였었는데요. 이제는 속기협회도 여성 회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회원들도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협회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위에서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보인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과찬의 말씀을... 하지만 늘 꿈을 꾸고 도전하며 지적 호기심이랄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하다보니 마음만은 늘 젊게 살고 있지요. 젊어보이는 건 아마 철이 덜 들어서가 아닐지?

■ 끝으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자세로 살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조직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편집기자)

국회의원과 속기사

양 선 모

이 제목을 결정하고 나니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참새와 허수아비'라는 노래가 문득 떠오른다. 결코 하나의 연인이 될 수 없는 참새와 허수아비를 애절한 사랑 끝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연으로 승화시킨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이런 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국회의원과 속기사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끄럽게도 속기사라고 하면 단순히 글을 빨리 적어서 기록하는 단순기능 보유자라고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몇 분의 속기사들을 알게 되면서 속기사들의 직업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속기사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속기록에 잘못된 의미로 영영 남게 된다. 그런 연유로 해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속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속기사에게 의미 전달이 정확치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원들이야말로 기록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국회의원과 속기사의 관계는 참새와 방앗간처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중국을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인들은 개인의 역사, 자기의 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가족사,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 그리고 국가의 역사를 소중히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경우는 개인이나 가족사는 소중히 하면서도 고장사나 국가의 역사를 등한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역사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회 의정활동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소중하다 못해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식구들 가운데 대다수가 속기사의 기능을 국회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아무래도 속기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속기사들과 만날 때마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에피소드의 보고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선 어느 국회의원과 관련된 에피소드의 보고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선 어느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질의를 하는지, 그리고 국정감사 때 누가 가장 질의다운 질의를 하는지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국회의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속기사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에 향간에 시민단체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속기사의 평가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속기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 면에서 보면 대략 3선 의원을 능가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말하는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학은 물론 관련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속기사들의 경우, 말하기보다는 적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에 과묵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내가 접한 속기사들은 유우며 감각과 재치가 뛰어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말을 못한다는 편견이 없어지고 말았다. 아울러 속기사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필요한 어학공부나 전문지식의 습득에 꽤나 열성적임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듣다 보면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가보다. 이런 면에서 속기사들은 항상 지적 면에서 자극을 받는 좋은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말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속기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국회식구들이나 국민들은 속기록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우리들이 역사의 소중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낙후되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원들의 정확한 활동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도 국정감사나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부끄러운 생각마저 든다. 이것 역

시 기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탈피하고 선진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데,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기록에 의한 평가라고 본다.

말은 한 번 입에서 떠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글로 남기면 영원한 기록으로 남아서 평가의 자료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시민 단체들이 회의록을 통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서 일반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항상 감시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 선진화가 머지않아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속기사들은 국회의원과 국민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이 매개체가 없다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민은 별개의 존재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서로 비판과 불신만을 하게 되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속기사들이야말로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연결해주는 단단한 끈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속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새 천년에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속기사들도 속기사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상기하면서 국민과 국회의원의 멀었던 거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많은 의정 참세들이 부지런히 방앗간에서 회의록을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이 16대 국회에서 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의원 비서관)

속기 채점기준에 관하여

韓東春

I

1980년 신 군부가 대권을 장악하면서 국민 통제의 일환으로 모든 자격시험의 시행 관리를 국가기관으로 이관하게 되어, 1970년부터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가 고유의 기능으로 시행하던 속기사자격시험도 국가기관으로 넘어갔다.

처음에는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국회 속기과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더니 주산, 부기, 타자 등 사무계와 함께 속기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되었으나 그들도 속기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1983년쯤으로 기억되는데, 종로 3가의 동방속기학원으로 상공회의소의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은 귀학원의 속기 채점 기준의 사본을 보내 주면 속기 자격 검정시험에 참고하겠다고는 것이었다. 당시 학원에는 속기 채점 기준이 없어 속기협회에 알아본 즉 협회에도 성문화된 문건은 없었다. 하기가 전부가 전문가들이므로 따로 기준이 필요치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자, 탈자, 첩자 등으로 구별하여 채점하고 애매모호한 것은 채점에 참가한 속기사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기준이요 규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속기계의 사정이고, 법률이나 규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관료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협회에서 시행한 자격시험이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된 것으로 오해받거나 또 우리 나라에서 제일 오래되었다는 속기학원에서 기준도 모르고 엉터리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잘못 알려진다면 이것은 정말 속기계 전체의 위신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채점 기준을 정리해서 하나의 문건으로 성문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나는 기준을 만들기로 작정하였다.

권위 있어 보이려고 맨 앞에 국회사무처 속기사 채용시험 채점 기준에 준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적고 오자, 탈자, 첨자,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채점 방법 등을 적절한 예를 들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만년필로 정서(整書)하여 복사본 1부를 상공회의소에 보내고 원본은 학원에 보관하였다.

그 후로는 그런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10년이나 지난 93년 속기사 자격시험채점을 주관하고 있던 김영춘씨로부터 상공회의소에 채점 기준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학생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부 얻었다.

학원에 와서 보니 어디서 본 듯하여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만든 것이다. 책상 속에 보관하고 있던 원본을 꺼내서 대조해 보고 또 한번 놀랐다.(면 참조)

설명은 물론 예문까지도 똑 같았다. 심지어 「하며는」, 「뉴우요오크」, 「뉴우스」, 「토오쿄오」 등 틀린 부분까지도 그대로 옮겨 실었다. 이 기준은 98년에 발간한 「한국 속기 50년사」에도 실렸는데 위의 틀린 부분도 그대로 전제되었다. 한 개인의 10년 전 실수가 영구히 보존될 중요한 자료에 파리똥 같이 들러붙어 있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II

우리의 속기 교육은 문장을 보지 못한 채 글자에만 매달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모든 글자는 한 자의 가치로 모두 동등하다. 그야말로 철저한 민주주의이다. 그 글자 하나로 인하여 문장의 뜻이 정반대로 바뀌었는데도 그냥 한 자의 잘못으로 채점하고 있다. 문자의 계급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문장에서 역할하는 가치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속기는 소리의 사진이라고 믿었던 오해가 속기록은 죽어도 못 고친다는 우화를 낳고, 그 글자가 어디에 있든 원고지 위에만 있으면 쳐 주는 편의

성이 내용과 동떨어진 원고를 관대하게 봐주고 관대하게 봐주니까 정확한 속기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글자 한 자 한 자 따라 쓰기에 급급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속기를 하는 것이나 글자 하나 하나를 쫓아 채점하는 것은 다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말에는 단 한두 자로 뜻을 바꿔 놓는 경우가 많다.

안, 아니, 못, 여간, 있다, 없다, -밖에, 불-부(不), 비(非) 등은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한두 자의 가치로 채점할 수는 없다.

단순한 오자 즉, 「있습니다」를 잘못하여 「있읍니다」로 쓴 경우와 내용이 바뀐 「있습니다」를 「없습니다」로 쓴 경우를 같은 한 자의 잘못으로 채점하겠는가?

일 안하고 밥 먹는다. → 일하고 밥 먹는다.
토론 아니하고 의결했다. → 토론하고 의결했다.
구경도 못하고 돌아다녔다. → 구경도 하고 돌아다녔다.
지금 여간 행복하지 않다. → 지금 행복하지 않다.
투자할 자금이 있다. → 투자할 자금이 없다.
그는 불친절한 사람이다. → 그는 친절한 사람이다.
그런 행위는 비신사적이다. → 그런행위는 신사적이다.

비슷한 말과 틀린 말은 같은 수준으로 채점해서는 안 된다. 여러 자가 틀려도 비슷한 말이라면 가볍게 벌하고 한 자가 틀려도 내용이 반대가 된 말은 무겁게 벌해야 한다.

논의한 끝에 해결되었다. 상의한 끝에 해결되었다.

산달이 가까워 온다. → 산월이 가까워 온다.
회의장에 갔다. → 회담장에 갔다.
그의 생각은 아주 긍정적이다. → 그의 생각은 아주 부정적이다.
미국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다. → 미국에 민주당과 공산당이 있다.
내 친구가 갔다 왔다. → 내 친구가 왔다 갔다.

말이 되는 낱말이 있고 말이 안되는 낱말(?)이 있다. 말이 되어야 말이지만 말이 안되게 글자만 나열한 겨우도 예상할 수 있다. 무겁게 벌해야 한다.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바꾸어 쓴 경우도 무겁게 벌해야 한다. 띄어쓰기와 마침표, 가운뎃점, 소수점은 채점하는것이 타당하다. 띄어쓰기 잘못으로 엉뚱한 문장이 되므로 최소한으로라도 띄어 쓰기를 하고 문장이 끝났는데도 마침표를 하지 않는다면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운뎃점과 소수점은 설명이 필요 없다.

III

속기 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준안을 만들었으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1984년 4월로 작성 일자가 기록된 기준안을 조금만 손질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속기 채점 기준 (안)

1. 오자(誤字) : 낭독한 글자와 다르게, 잘못 쓴 글자.

- ①비슷한 낱말인 경우는 틀린 글자만 감점한다.
 - 증언을 기피하고 → 증언을 **회**피하고
 - 잘못할지라도 → **잘못**하더라도
 - 이 절차에 대한 → 이 절차에 **관**한
 - 국민의 의욕 → 국민의 **의지**
 - 사모하는 마음 → **연**모하는 마음
- ②관이한 낱말인 경우는 글자 수에 관계없이 그 낱말의 글자를 모두 감점한다.
 - 성실하게 진행한다. → **친절**하게 진행한다.

동물을 사랑하자. → 식물을 사랑하자.

같은 절차에 의한 → 같은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의욕이 → 국민의 의혹이

공화당에서 → 공산당에서

③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바꾸어 쓴 경우는 틀린 조사와 그 조사가 붙은 낱말의 글자를 모두 감점한다.

호랑이가 먹고 있는 → 호랑이를 먹고 있는

누구를 보느냐 → 누구는 보느냐

사람이 잡아 먹고 → 사람을 잡아 먹고

④ 숫자는 낭독한 음절수를 글자 수로 한다.

가) 단위가 틀린 것은 전체가 틀린 것으로 한다.

24억 → 24만 (이십 사억)

270 → 27 (이백 칠십)

400 → 40 (사백)

27.25 → 2.725 (이십 칠 점 이오)

나) 10단위 이상의 숫자가 틀린 것은 전체가 틀린 것으로 한다.

26억 → 27억 (이십 육억)

23 → 24 (이십 삼)

23 → 33 (이십 삼)

276 → 286 (이백 칠십 육)

다) 백과 일백, 천과 일천, 만과 일만... 등은 한글로 표기할 때만 구별한다.

1984 → 일천 구백 팔십 사. 천 구백 팔십 사

2.탈자(脫字) : 기록하지 못하였거나 번문하지 못하여 빠진 그자.

①탈자 1자를 오자 1자로 채점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 이런 생각을 ××× 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 생각× 할 수 × 있다.

기억하기조차 싫다. → 기억하기 ×× 싫다.

②문장부호 중 마침표, 가운뎃점, 소수점 등을 안 찍으면 탈자로 채점한다.

삼일 운동 3·1운동 → 31운동 팔일오 8·15 → 815

사일구 4·19 → 419 십이륙 10·26 → 1026

이사분기 2·4(2/4)분기 → 24분기 99.99% → 9999%

3.첨자(添字) : 기록상의 착오나 오청으로 인하여 번문할 때 첨가된 글자.

①문맥상 같은 의미의 경우는 첨자로 채점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다. →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보고 가다. → 보고는 가다.

②문맥이 통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첨자는 그 부분을 모두 오자로 채점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 그리고 이러저러한 조치를

공화당에서 → 공산화당에서

그렇게 시키면 된다. → 그렇게 시키 받으면 된다.

4.반전(反轉) : 내용이 정반대되게 번문한 답안.

①부정적인 부사 「안」 「아니」 「못」 「여간」 등의 유무로 내용이 반전된 경우는 그 부사가 영향을 주는 다음 낱말까지 오자로 채점한다.

당장에는 아니 된다. → 당장에는 ××된다. (4자)

서울에 못 갔습니다. → 서울에 × 갔습니다. (5자)

여간 출지 않습니다. → ×× 출지 않습니다. (6자)

②부정적 접두어 「불부(不)」 「비(非)」 「무(無)」 등의 유무로 내용이 반전된 경우는 그 접두어가 붙은 낱말까지 오자로 채점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3자)

비무장 군인이 가다. → ×무장 군인이 가다. (3자)

관광은 무공해 산업이다. → 관광은 ×공해 산업이다. (3자)

③반대되는 서술어를 사용하여 반전된 경우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포함하여 오자로 채점한다.

가지에 나뭇잎이 하나 있다. → 가지에 나뭇잎이 하나 없다. (5자)

밤을 한 톨 주었다. → 밤을 한 톨 받았다. (4자)

오늘도 성적이 올라갔다. → 오늘도 **성적**이 **내려갔다**. (6자)

총무로에 전철을 탄다. → 총무로에서 **전철**을 **내린다**. (5자)

낮에는 검은 색이 잘 보인다. → **밤**에는 **검은 색**이 잘 보인다. (4자)

쌀을 사서 돈을 만든다. → **쌀**을 **팔아서** 돈을 만든다. (4자)

비교하는 낱말이 바뀌어 반전된 경우는 비교한 낱말을 모두 감점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 **배꼽**보다 **배**가 크다. (3자)

물보다 고기가 많다. → **고기**보다 **물**이 많다. (3자)

형만한 아우 없다. → **아우**만한 **형** 없다. (3자)

5. 외래어 및 약자 : 낭독한 음절 수를 글자 수로 한다.

radio (라디오) computer (컴퓨터)

television (텔레비전) CD-ROM (시디롬)

R&D (알앤디) Q&A (큐엔에이)

IMF (아이엠에프) UN (유엔)

USA (유에스에이) AID (에이아이디)

6. 낱말의 순서가 바뀐 문장 : 의미상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첨자 수준으로 감점한다.

①단순히 뒤바뀌었을 경우는 자수가 적은 낱말을 첨자로 감점한다.

새가 쏘살같이 날아 갔다. 쏘살같이 새가 날아 갔다.

자동차가 너무 많다. 너무 자동차가 많다.

우리로나 종로에서 만나자. 종로나 을지로에서 만나자.

②우선순위가 분명한 경우는 앞 글자를 오자로 채점한다.

시군읍면 시군면읍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셋째 둘째

갑을병정 갑을정병

7. 띄어 쓰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자 1자로 채점한다.

① 종결어미 다음에 붙여 쓴 것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②조사 다음에 붙여 쓴 것

아버지가 방에 들어 가시다. 아버지가방에 들어 가시다.

③조사가 생략된 다음에 붙여 쓴 것

내 가지고 오마. 내가지고 오마

④부사, 형용사, 감탄사 다음에 붙여 쓴 것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빨리 오시오. 빨리오시오.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강산

⑤한 낱말이나 조사를 띄어 쓴 것

이것이 저것보다 크다. 이것이 저것보다 크다.

여기에서는 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귀한 것이다.

물이 맑아지다. 물이 맑아지다.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당신

8. 허용(許容)

①뜻이 같고 발음상 구별하기 곤란한 것은 다 맞는 것으로 하다.

면 = 면은 만 = 마는 엔 = 에는

덴 = 데는 로선 = 로서는 에겐 = 에게는

론 로는 뵈다 = 되었다 봤다 = 보았다

는데에 = 는데 이루어 = 이뤄 맞춰 = 맞추어

이란 = 이라는 1을 = 2를 자유를 = 자율을 등

②낭독자가 오독한 것은 낭독한 대로 쓴 것을 맞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객

관적으로 분명한 오독인 경우는 정정하여 쓴 것도 맞는 것으로 한다.

패북(敗北) = 패배 유설(遊說) = 유세

삭급(遡及) = 소급 뇌살(惱殺) = 뇌쇄

수검(收斂) = 수렴 알륵(軋轢) = 알력

불등(沸騰) = 비등 녹사(轢死) = 역사

증악(憎惡) = 증오 낙산낙수(樂山樂水) = 요산요수 등

③숫자는 한글전용, 아라비아숫자, 한글·아라비아숫자 혼용 어느 것으로 번문하여도 맞는 것으로 한다.

35,650원 = 삼만 오천 육백 오십원

이십 사만 = 240,000 = 24만

이천억 = 200,000,000,000 = 2,000억 = 2천억

④외래어는 문교부가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음 대로 또는 원어로 쓴 것도 맞는 것으로 한다.

아메리카 = 어메리카 = America 자켓 = 재킷 = jacket

도쿄 = 토쿄 = 東京 코메디 = 커미디 = comedy

텔레비전 + 테리비전 = television 라디오 = 레이디오 = radio

초콜렛 = 차클릿 = chocolate 워싱턴 = 와싱턴 = Washington

도요다 = 토요타= Toyota 바이러스 = virus

⑤도량형 표시는 한글로 쓰거나 고유표시 또는 원어로 쓰거나 다 맞는 것으로 한다.

미터 = m = meter 톤 = t = ton

피트 = ft =feet 퍼센트 = % =percent

파운드 = lb =pound 달러 = \$ = dollar

바이트 = b = byte 기가 = G = giga

⑥「내지」는 한글 또는 「~」 표시도 맞는 것으로 한다.

5 내지 7 → 5~7

9. 오자와 탈자가 전체 낭독 자수의 3분의 1 이상일 때에는 채점하지 아니한다.

10. 총 실점의 계산

오자, 탈자는 매 1자를 실점 1자로 하고 첨자는 매 3자를 실점 1자로 하여 합산하며, 첨자 3자 미만은 버린다.

11. 판정

총 실점수가 총 낭독 자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다만, 연설체와 논설체 2 가지를 검정했을 때는 합산하여 평균 90%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참 고]

<현행속기검정시험기준>

1. 검정기준개요

명칭	등급	검정기준
등 급	1급	한글속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한글속기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급	한글속기에 관한 하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영 문 속 기	1급	영문속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속기술·타자술 및 문서정리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급	영문속기에 관한 중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속기술·타자술 및 문서정리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3급	영문속기에 관한 하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속기술·타자술 및 문서정리에 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합격기준

자격 명칭		합격결정기준	
종목	등급	만점	합격점수
한글속기 또는 영문속기	1급 내지 3급	매과목 100점	매과목 정확도 90% 이상

3. 채점기준

종목	등급별	채점기준	
		연설체	대화문
한글속기	1급	기록속도 5분 기록량 1,600자 번역시간 60분	기록속도 5분 기록량 1,450자 번역시간 60분
	2급	기록속도 5분 기록량 1,500자 번역시간 60분	기록속도 5분 기록량 1,350자 번역시간 60분
	3급	기록속도 5분 기록량 1,350자 번역시간 60분	기록속도 5분 기록량 1,200자 번역시간 60분

종목	등급별	서한문	연설문	서한문
영문속기	1급	해당없음	기록속도 5분정도 기록량 650단어 번역시간 70분	기록속도 5분정도 기록량 650단어 번역시간 70분
	2급	기록속도 3분정도 기록량 300단어 번역시간 40분	기록속도 5분정도 기록량 500단어 번역시간 70분	해당없음
	3급	기록속도 5분 정도 기록량 350단어 번역시간 70분	기록속도 5분정도 기록량 200단어 번역시간 40분	해당없음

4. 속기검전세부기준

(1) 한글속기

- 정확한 발음에 낭독된 문장을 속기문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 낭독하는 문장은 연결체 또는 연결체이어야 한다.
- 낭독하는 문장은 문장은 전문분야의 용어가 아니고 보편성을 띤 것으로서 상용숙어(문교부발행 교과서에 수록된 것)가 전체문자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 번역문은 연필이 만년필이나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번역문은 한글로 작성한다.
- 번역문은 맞춤법에 맞추어서 적어야 한다.

(2) 영문속기

- 표준어를 사용하는 Native speaker에 의하여 낭독된 문장을 속기문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 받아쓰기는 1회에 한한다.
- 낭독하는 문장은 전문분야의 용어가 아닌 보편성을 띤 문자이어야 한다.
- 번역문은 영어로 영문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고유명사는 틀려도 무관하다.
- 사전은 사용하여도 좋다.
- 속기 note는 지참하여도 좋다.

5. 속기검정시험 채점 기준

(1)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 가. 답안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
- 나. 답안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것.
- 다. 답안을 연필로 기재한 것(기재부분만 제외)
- 라. 답을 지정된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
- 마. 감독위원 날인이 없는 것.
- 바. 인적사항을 정정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

사. 원고매수에 의한 실격판정 : 번문된 원고매수를 확인하여 실격판정

낭독총자수	1,600자	1,500자	1,450자	1,350자	1,200자	비고
번문작성 원고매수	11매정도	10매정도	10매정도	9매정도	8매정도	200자 원고지 1면 150자 기준
체점대상	8매 이상	8매 이상	8매 이상	7매 이상	6매 이상	
실격판정	7매 이상	7매 이상	7매 이상	6매 이상	5매 이상	

아. 체점도중의 실격판정

낭독총자수	1,600자	1,500자	1,450자	1,350자	1,200자	비고
체점중실격 판정원고매수	6매 이하에서	5매 이하에서	5매 이하에서	5매 이하에서	4매 이하에서	
총오자수	160자 이상	150자 이상	145자 이상	135자 이상	120자 이상	

자. 검정기준에서 정한 각급별 시험과목중 1개 과목이 기주에 미달인 경우 타과목은 채점 하지 않는다.

(2) 한글 속기 답안지는 아래와 같이 채점한다.

가. 오자 : 낭독내용과 다르게 번문한 것으로 채점은 ×표로 표시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 내용

××

정책이 정치상

나. 탈자 : 낭독내용을 빠뜨리고 찍지 않은 것으로 채점은 ×표로 표시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 내용

××

이 문제해결 이 해결에

다. 첨자 : 낭독내용 이외에 더 쓴 글자로 채점은△표로 표시하며 낭더? 한 글자보다 많은 것을 첨자로 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 내용

△△

-에 관해 -에 관해서는

△ ×△

여기 있다. 여기에 있었고

△ ×

보고 있는데 보고자 하는데

라. 뜻이 같고 발음상 구별하기 곤란한 것도 다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면 = 머는 마 = 마는 엔 = 에는

덴 = 데에는 로선 = 로서는 에겐 =에게는

론 = 로는 이뤘 = 이루어 맞춰 =맞추어

마. 낭독자(낭독테이프)가 오독한 것을 낭독한 것대로 기록한 것을 맞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분명한 오독인 경우는 정정하여 기록한 것도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패북(敗北) 패배

삭급(遡及) 소급

수검(收斂) 수렴

바. 외래어는 문교부가 제정한 표기방법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뉴오요오크 = 뉴욕 = New York

뉴우스 = 뉴스 = news

토오크오 = 도쿄 = 동경 = Tokyo

키리만자로 = 킬리만자로 = Kilimanjaro

사. 번문내용이 낭독내용과 뜻이 다르더라도 그중에 낭독한 것과 같은 글자는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 × 육성방안에 대해 교육 방안에 대해

× △ ×× 보고서를 가지고 고지서를 버리고

△ × 개발계획에서 5개년 계획에서

아. 번문내용이 한글맞춤법에 맞지 아니한 것을 오자로 하며 띄어쓰기는 채점하지 않는다.

자. 문장부호는 오자, 탈자, 첨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 ? " " ! 등

차. 번문은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래어나 외국명은 원어로 쓸 수 있다.

예) 낭독내용 번문내용

유엔 유엔 UN

나사 나사 NASA

스위스 스위스 Swiss

유네스코 유네스코 UNESCO

카. 숫자는 한글전용, 아라비아숫자, 한글·아라비아숫자 통용, 어느 것으로 번문하여도 맞는 것으로 한다.

예) 35, 650원 = 삼만오천육백오십원

이십사만 = 240,000 = 24만

이천억 = 2,000,000,000 = 2,000억 = 2천억

타. 숫자와 % 및 단위 등은 발음(음질)대로 출제하고 채점한다.

예) 237 = 이백삼십칠(5자)

% = 퍼센트(3자)

kg = 킬로그램(4자)

파. 각종 단위 표시는 한글로 쓰거나, 고유표시 또는 원어로 쓰거나 다 맞는 것으로 한다.

예) 미터 = m = metter

톤 = t = ton

피트 = ft = feet

하. 총실점의 계산-오자 탈자는 매 1자를 실점 1자로, 첨자는 매 3자를 실점 1자로 합산 한다. 다만, 첨자 2자 미만은 버린다.

예)

표시	실점계산
× 25	25자
△ 29	29 ÷ 3 9자
계	34자

(3) 영문속기 답안지는 아래와 같이 채점한다.

가. 오단어, 탈단어, 첨단어는 각각 1단어 실점으로 한다.

나. 의미를 변하지 않게 하는 첨단어 및 탈단어는 각각 1/2단어 실점으로 한다.

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대체된 경우는 1/2단어 실점으로 한다.

라. 의미를 변하지 않게 하는 단어의 배열 잘못은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마. 단, 복수의 부정확한 처리는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바. 관사나 전치사의 오단어, 탈단어, 첨단어는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사. 철자법이 틀린 경우는 1/4단어 실점으로 한다.

다만, 같은 단어는 계속 오역할 경우에는 1회만 감점한다.

아. 대·소문자의 부정확한 처리는 실점으로 하지 않는다.

자. 1급은 130단어, 2급은 100단어, 3급은 70단어 이상 오·탈단어가 실점되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6.컴퓨터 속기 검정기준

(1)등급별·과목별 출제분량 및 시험기간

등급별	시험과목	
	연설체	대화문
1급	기록속도 : 5분 기록량 : 1,600자 번문시간 : 20분	기록속도 : 5분 기록량 : 1,450자 번문시간 : 20분
2급	기록속도 : 5분 기록량 : 1,500자 번문시간 : 20분	기록속도 : 5분 기록량 : 1,3500자 번문시간 : 20분
3급	기록속도 : 5분 기록량 : 1,350자 번문시간 : 20분	기록속도 : 5분 기록량 : 1,200자 번문시간 : 20분

※ 상기 기준은 번문시간(수필속기 60분)이외는 현행 속기검정기준(수필속기 기준)과 동일함

(2) 검정방법

가. 수검에 필요한 관련기기 및 프로그램(PC 및 프린터기 제외)은 제한하지 않으며 필히 수검자가 지참하여야 한다.

나. 낭독된 문장은 컴퓨터속기 기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속기)한다.

다. 번문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맞춤법에 맞게 수정, 편집하여 답안디스켓에 저장한다.

라. 답안은 답안디스켓과 본인이 출력한 답안을 함께 제출한다.

(3) 합격결정기준 : 매과목 정확도 90% 이상

(4) 채점 기준

가. 실격기준

시스템 조작미숙으로 수검이 어렵다고 판단된 수검자

제공한 답안작성용디스켓 및 답안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답안지에 인적사항이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답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감독위원의 확인 날인이 없는 것

1개 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타과목은 채점하지 않음

나. 세부 채점기준 : 현행 수필속기와 동일함

(협회 이사)

제7회 99속기 학술세미나

김 덕 진



세미나도 매번 새로운 발생처럼 새롭게 치를 수 없을까?

1999년 5월 신임 이사장께서 제 7회 속기학술세미나의 실시계획을 세워 보라고 말씀하신 이후 고민은 시작되었다. 뭔가 색다르게, 지루하지 않으면서 실속 있게 치를 수는 없을까? 머리숱 만큼이나 빈곤해진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있는데 동료들이 점심을 하자며 중국음식점으로 가자고 했다. 자장면을 시켜놓은 후에도 머리 속은 세미나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작년 국정감사 때에 맛보았던 중국요리가 떠올랐다.

98년 10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반에 배속되어 아주반 국정감사로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를 여행할 기회를 가졌다. 감사의 내용이 야 논외로 하고 10일간의 감사활동기간 내내 나를 사로잡은 것은 여야 중진의원들의 미식습관 덕택에 실컷 맛볼 수 있게 된 중국요리의 황홀함이었다. 단 한 번도 같은 요리가 나오는 법이 없이 계속 새로운 메뉴로 궁금증과 미각을 자극하던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몽고의 유목민과 티베트의 산중에서 전래되었다는 이름도 모를 음식, 조어

대 영빈관에서 맛본 제국을 호령하던 황제의 음식, 부처가 담을 넘어 달려올 정도로 맛있다는 불도장, 오리요리 세계최고라는 북경의 패킹덕, 향기 그윽한 소흥주 등등.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선도 높은 음식을 매일 찾아내는 의원들의 선구안도 좋았지만 대륙의 넓이만큼이나 화려한 중국음식의 다양성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매년 새로운 밥상을 차릴 수는 없을까? 망년회도 매년 새로운 형

식을 두 번 다시 올귀먹는 것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속기사들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도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머리를 짓눌렀다.

체험과 시행착고, 시간이 필요할 뿐 다행이랄까. 회원들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예산과 공무원이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파격적인 계획안은 처음부터 입안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내실 있는 세미나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머리도 식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 보니 예년의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학술세미나라는 행사내용이 무색하지 않게 학계에서 한 분을 추천받아 중앙대의 사학과 교수이신 김호일 교수를 모시게 되었다. 알고 보니 권용태 부회장께서 선배가 되셔서 얘기가 더욱 부드럽게 진행된 점이 다행스러웠다.

‘국회의원과 속기사는 한통속’이라는 홍사덕 의원의 말씀도 있지만 의원회관 쪽의 섭외는 의외로 쉽게 않았다. 6·3 보궐선거 탓에 여야 의원 모두에게 동원령이 내려 선거 전후의 일정을 확답 못 하겠다는 보좌진들의 전언이었다. 반신반의 하여 후보로 거론된 서한샘·김홍신·박원홍 의원과 카폰으로 직접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한결 같았다. 서울이라면 어떻게 시간을 내 보겠지만 그 외의 장소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속기사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다음 기회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무리인사의 말씀은 세 분 모두 잊지 않았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돌아가며 한 분씩 초청하자는 의견은 내부 의견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OK였다. 어느 분에게 먼저 얘기하느냐만 문제로 남았다. 치열한 인선경합 끝에 국회를 총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김호영 수석전문위원으로 결론이 났다. 본인도 흔쾌히 수락하셨음은 물론이다.

평소 속기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홍기표 자격심사위

원회 간사는 막상 발표를 부탁하자 가장 크게 손을 내저었다. 본인 스스로 '발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야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공개석상에서 소신을 피력해 보라는 설득 끝에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다. 세미나 후 모니터 결과 지방의회에 있는 회원들에게 가장 인상깊은 발표라는 평가가 있었다.

현지답사팀, 이동대책팀, 상황본부팀, 지원팀의 각 팀장 이하 요원들의 수고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항상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지면을 빌어서나마 한기수, 김영중, 이동준, 장미경 팀장을 비롯하여 묵묵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속기협회의 차세대 주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세미나 준비에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물론 고생은 되지만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세 번을 치러본 결과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긴 듯한 자만심이 드는데 이 감 형성의 비결은 없으며 체험과 시행착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제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더욱 알찬 세미나가 되어야겠고,

그리기 위해서는 뭔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어야겠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협회 사업부장)

★ 제7회 세미나 준비상황 일정표 ★

- 5월1일-제7회 속기학술세미나 계획 입안
- 5월3일-세미나 장소를 인원수,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횡성의 성우리조트, 충북 청주의 둔산하일라 콘도 경기도 용인의 신세계그룹연수원과 양지파인리조트 4곳을 후보지로 하여 검토 시작
- 5월4일-참가회비 회원 2만원, 비회원 5만원으로 잠정 결정
- 5월6일-주제발표 및 분임토의 의제검토
- 5월7일-체크리스트 작성
- 5월10일-세미나준비기획단(단장 김덕진 사업부장)총 25인으로 발족
- 5월11일-주제발표자를 김홍신 의원, 박원홍 의원, 서한샘 의원, 김호일

교수, 정호영 수석전문위원 중 2인과 내부 인사 1인으로 하는 잠정안으로
섭외 시작

- 5월12일-지방의회 소속회원 수녀부에 전호로 통보
- 5월13일-전세관광버스 3대 계약
- 5월14일-참가회비 확정
- 5월17일-세미나장소 양지리조트로 확정, 담당자와 계약
- 5월18일-현수막 문안 의뢰
- 5월19일-식사메뉴 확정
- 5월20일-현지답사
- 5월21일-현지답사 결과 보고
- 5월25일-세미나계획 확정
- 5월26일-주제발표자 김호일 교수, 정호영 수석, 홍기표 간사로 확정
- 5월28일-세미나 공문 발송
- 5월29일-음악 및 여흥 진행자 섭외 확정
- 5월31일-세미나 참가자 접수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시작
- 6월1일-세미나 주제발표 원고 수집, 인쇄 의뢰
- 6월2일-세미나 일정안내서 작성, 회장단 및 원로선배 회원 참가여부 확인
- 6월3일-세미나 인사문 및 시나리오 작성
- 6월4일-분임토의 실시계획 입안
- 6월5일-식순 작성, 강사소개서 작성
- 6월7일-중앙일간지 동정란에 지대섭 회장 사진·기사 게재 의뢰, 기념품 협찬 의뢰, 각 팀별 리허설 시작
- 6월8일-세미나장 부작물 및 분임토의 준비, 주제발표자별 담당 확정
- 6월9일-세미나 참가자 접수마감, 숙소배정계획 확정, 개별출발 및 버스출발자 명단 작성
- 6월10일-세미나 일정안내서 유인 의뢰, 명찰 작성 의뢰
- 6월11일-최종 리허설, 주류·음료·상품 구입, 선발대 출발하여 세미나장, 숙소 및 식당 점검
- 6월12일-세미나장 세팅
- 6월12~13일-제7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 6월14일-세미나 결산
- 6월15일-이사회에 보고, 준비기확단 해산

동방식속기법 창안자 李東根선생



한글속기법 창안자 중 유일한 생존자 우리 速記史에 있어 실용속기법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제헌국회를 전후하여 발표된 속기법 창안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남아 있는 선생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12단지 주공아파트 1206-1602호 자택에서 수년 전부터 앓아오고 있는 지병과의 힘겨운 투병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오늘날 속기법의 機械化 추세로 인해 수필속기술 보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한 속기계 소식을 후진들로부터 전해들을 때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겠지.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시대라 하더라도 수필속기는 수필속기대로 필요한 거야."

선생이 속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35년 만주 안동 신흥상업학교 1학년 때부터다.

3·1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전해인 1918년 3월 27일 평안북도 신의주시 진사동에서 목재상을 경영하던 아버지 이정규(李精奎)와 어머니 이숙자(李淑子) 사이에 3남1녀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겨우 두 살 되던 해인 1919년 유아기에 부모님의 등에 업혀 만주 안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만주로 이주하기 전 평소 김구 선생을 존경했고 한학(漢學)에 심취해 있던

아버지가 사상범으로 지목받아 얼마간 옥고를 치렀던 까닭에 생활력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계는 어머니에 의해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맞춤양복을 잘 만들기로 주위에 널리 소문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만주 안동의 대정보통학교 2학년 재학중에 당한 어머니의 갑작스런 별세는 그로 하여금 일찌감치 실업학교를 택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의 시립학교 시절은 여러 가지 모양의 속기활동으로 인해 흥미롭게 재미있는 나날이었다. 보통학교 6년 동안 줄곧 반장을 놓치지 않았던 그가 실업학교(신흥상업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접한 速記는 마냥 신기하게만 여겨졌다. 당시만 해도 녹음기란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교장선생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을 수 있다"는 속기술에 무조건 반해버렸던 것이다. 동근 학생이 배운 속기법은 당시 일본에서 널리 보급되던 나카네식(中根式)이었다. 신흥상업학교에선 10여명의 학생이 과외로 속기반을 만들어 열심히 연습했는데 물론 리더격인 속기부장은 동근 학생이 맡았다.

그가 배운 속기술을 실무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3학년 때부터였다. 당시의 실업학교 학년제는 5년제였고, 학교 교지에 실리는 교장선생의 훈시기사 작성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내에 조직된 악대에서 클라리넷도 불었기 때문에 신흥상업학교 학생이라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전무할 정도로 인가가 있었다. 다른학교에도 불려다니며 자신이 배운 속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그는 졸업과 동시 만주 안동에 있는 청년단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속기실무를 했고 일제말기에 징병을 피해 단신으로 서울에 입경하여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숙부의 일을 도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동년 11월에 창간된 《주간 문예신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그간 숙달한 속기술을 각종 좌담회나 인터뷰시에 활용했다. 속기방법은 우리말을 일본어속기법으로 속기하여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식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 27세.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이었다.

"그때 몸은 《문예신보사》에 속해 있었지만 여타 다른 언론사로부터 속기청탁을 받아 속기를 해준 일도 많았지.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말속기법 창안에 밤낮없이 골몰했었어. 근무중에도, 길을 가다가도 착상만 떠오르면 메모를 했고, 퇴근후 집에 돌아와서는 꼬박 날밤을 새면서 연구에 몰두한 적이 허다했었어."

《문예신보사》에서 1년간 근무후 대조출판사 총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 그가 우리말 속기법에 투자하는 시간은 늘어갔다.

"그런데 내가 익힌 나까네식(中根式)을 기초로 하여 우리말 속기법을 창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나 자신이 한글의 마춤법과 문법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 그래서 우리말 문법책을 사다놓고 공부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지. 그리고 가장 사용 빈도수가 많은 음을 가장 쓰기 쉬운 기본문자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자료가 부족했던 까닭에 신문만 보면 사용빈도수 많은 음과 단어를 집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어." 이윤영 사회부장관의 배려로 박애원에 해방속기학원 개설 그런 가운데 그를 매우 초조하게 만든 것은 1946년 6월 장기태(張基泰)가 해방후 최초로 발표된 일파식(逸波式)을 《서울신문》에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46년 10월 좀더 속기연구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대조출판사로 자리를 옮겼지. 마침 출판사에서 내가 속기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시간적 여유를 주었을 뿐 아니라 속기책도 회사에서 출판해 주었어."

그때가 1948년 2월이었고, 범식명은 현 동방식(東邦式)인 전시인 해방속기(解放速記)였다.

속기교본을 출간한 이동근 선생은 동년 8월 대조출판사를 퇴사하고 곧바로 자신의 속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을지로4가 로타리에서 퇴계로 방향에 위치한 박애원에다 해방속기학원을 설립하여 후진양성에 들어갔다.

당시 사회부장관으로 있던 이윤영 장관이 대표로 있던 박애원은 자선단체였는데 보증금 일체를 받지 않고 빌려주었기 때문에 속기술 보급에는 더 없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책상 의자가 번듯한 데다 신발을 신고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수강생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그때만 해도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춘 학원들은 별로 없었고 대개가 신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들어가거나 신발대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야 하는 마루바닥 교실이 대부분이었다.

"이 무렵 장기태의 일과식은 종로 3가, 김천한의 고려식은 을지로 3가, 박인태의 중앙식은 을지로 5가, 강준원의 서울식은 안암동, 박송의 조선식은 역전 근처에다 각각 학원을 개설하였는데 말이 학원이니 마루바닥에 식탁을 펴놓고 공부하던 시절이었기에 책상과 의자를 갖추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학원이라면 최신식에 속했었지. 특히 학원을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 지금의 국도극장 앞골목에 위치해 있던 동서양재전문학원에 속기부를 두고 속기강습 수업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개인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개인지도를 받던 속기수강생 30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

49년 9월 학원 명칭을 해방속기학원에서 동방속기전문학관으로 개칭하고부터 수강생은 100여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다른 속기학원에선 수강생이 20~30명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렇게 수강생이 많았던 것은 육군본부에서 5명, 공군본부에서 2명, 해군본부에서 3명의 관비생을 동방속기전문학관에만 보내온 것에 PR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일 거야. 군속기병 1호로 알려진 이돈원도 바로 우리학원에서 수학한 사람이야. 겨울이면 육군본부에서 보내주는 장작난로를 피웠고, 여름에는 프로펠러형 선풍기를 틀었지만 수강생들의 속기열은 대단했었어."

당시 교과과정은 본과의 속성과로 나누어 본과는 1년, 속성과는 8개월이었고, 반편성은 3,4개 반 정도로 편성 되었으며, 신문광고는 6개월 단위로 했다.

"그러나 6·25는 여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기계에도 치명타를 안겨주었어. 그리고 대구 피난시절 육본 소속군인으로 나한테 속기를 배운 친구들이 거지중에 상거지꼴인 나에게 주머니를 털어 마련해 준 3만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큰돈이었어...."

평소에는 반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얘기하기가 불편한 몸이지만 기자와의 대화가 두 시간이나 지속되었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속기얘기를 들려

주는 이동근 선생.

그러나 "너무 많이 얘기하면 몸에 부담을 느낀다"는 사모님의 주의를 듣고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얘기를 듣기로 하고 선생과의 대화를 중단해야 했다.

이동근 선생은 1918년 3월27일생으로 부인 안반철 여사와의 사이에 4남 2녀의 자녀와 4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건강했을 때의 취미는 낚시.

현재의 건강은 날씨가 따뜻하면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아파트 근처를 산책할 정도이고, 요즘에는 성경책 읽기에 재미를 붙여 때늦은 독서삼매경(?)에 빠졌다고.

지난 99년 11월 하순경 기자가 방문했을 때는 사모님으로부터 굴·감·사과·배를 비롯한 푸짐한 다과까지 대접받아 제자로서 바쁜 사회생활을 핑계삼아 스승 찾아뵙기에 너무 소홀했다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었다.

기자가 이동근 선생을 처음 접했을 때가 종로 3가에 있던 장안빌딩 동방속기학원에서 속기술을 배우던 196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속기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시공을 초월한 열변에 변함이 없다.

수필속기사든 컴퓨터속기사든 속기술의 방법만 다를 뿐 속기술의 脈과 '速記人'이라는 신분은 분명 同質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의 교류와 뿌리찾기에 너무 인색한 세대를 원로 선배속기인들을 찾아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기자만이 느끼는 단견일까?...

(인터뷰 : 유순태 회원)

마카 고백한다

김 선 옥

지난 여름 휴가 때 동해안엘 다녀왔다.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는 삼척의 환선굴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동진에 잠깐 들렀다.

전에 왔을 때 썰렁한 역사 뿐이더니 정동진 역 앞에 즐비하게 들어선 카페들...

재빠른 상흔인지 아무튼 카페촌으로 변해버렸는데 그 중 '마카모예'란 간판이 눈에 띄었다.

'마카모예'란 '전부 모여'란 뜻의 순수 강원도 사투리이다.

강원도 평창에서 나고 세무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전근으로 초등학교는 강릉에서, 중·고교는 영월에서 보낸지라 오리지날 강원도산인 나는 사투리도 영동 영서가 혼합된 억양이다. 그 억양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도 남아 있어 고향이 이북이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십 몇 년 전 국회 속기사로 들어와 신참 시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모두들, 특히 경해라는 동기생 친구는 까르르 까르르 웃는 것이었다.

때문에 난 가끔적이면 말을 삼가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과묵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어느 날 당시 태완선 부총리(영월출신임)께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마카'란 단어가 나왔다.

다들 난리였다. 녹음을 거듭 들어봐도 점점 더 난해하게 들리는, 무슨 새로운 경제용어인가? 마롬엑스? 마카오? 마크? 마켓? 등등...

기획원 비서실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런데 실은 난 그 때 '전부, 모두'란 말을 뜻하는 사투리란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문맥상으로도 전부라고 해석하면 딱들어맞았다. 결국 그것을 기록한 당 사자가 태 부총리께 직접 확인하여 해결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햇병아리 시절 정답을 말했다간 또 '마카' 웃을까봐 난 그냥 모른 척했던 일이 있다. 아, 이 비겁함에 대하여 이제야 마카 고백하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 서기관, 협회 홍보이사)

속기계와 한글 자막 방송

김 점 동

서 론

1999년 2월 12일 오후 4시에 MBC방송국 전파를 타고 '속기'가 퍼져 나왔다. '한글자막방송'이 공식적으로 첫 전파를 탄 것이다.

그 방송을 지켜본 필자의 가슴은 잔잔한 감격의 물결로 파동쳤다.

우리 속기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실시간 속기'가 구체화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이 날의 의미를 우리 속기인들은 다같이 깊이 되새기고 자축해야만 할 것이다.

아니, 이것은 우리 속기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일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20세기 초엽에 우리말 속기가 수필속기로 시작되었다면 20세기 말에는 '기계속기' 또는 '전자속기'로 불리는 '컴퓨터속기'를 이용한 실시간(Real-Time) 한글자막방송이 개시됨으로써 우리 속기인 모두에게 '컴퓨터속기'가 새로운 시대의 속기방법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함과 동시에 속기의 미래에 대한 안도감과 자긍심을 시어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1. 자막방송과 문자방송

'자막방송'은 일반적으로 화면에 문자를 띄우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뉴스, 비디오, 영화 등의 화면 위에 글자를 넣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픈자막(Open Caption)'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전파를 통해 TV 주사선의 일부를 타고 들어가 '디코더'라는 장치를 거쳐 문자가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으로 '클로스트 자막(Closed Caption)' 이라고 한다. 한글자막방송은 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자방송' 은 TV화면이 아닌 PC통신에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단순히 문자를 띄우는 것으로 일종의 '오픈 자막(Open Caption)'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나 일반적으로 '자막방송'과 '문자방송'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는 또 온라인(On-Line) 서비스와 오프라인(Off-Line) 서비스로 분류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말 그대로 생방송을 실시간(Real-Time)으로 속기하여 내보내는 방식이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녹화된 테이프를 속기해 두었다가 화면에 자막으로 넣거나 방송과 동시에 그 내용을 한 줄씩 내보내는 방식이다.

2. 자막방송시스템의 구성

<자막방송도>

자막방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송수신-속기-엔코더-방송송출-디코더-TV화면"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다.

1단계는 속기사가 방송을 수신하는 것이다.

2단계는 속기사가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2명은 3초 간격으로 진행되는 시그널을 보며 교대로 속기하고 나머지 2명은 파트너가 속기한 내용을 동시에 따라가며 교정, 띄어쓰기를 한 후 송출키를 누른다.

이 자막방송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에 속기기계 2대를 연결할 수 있고 같은 글자로 두 줄로 나오는 특수시스템이다. 이 4명의 속기사는 팀웍이 잘 맞아야 되다. 우선 4명이 모두 360자정도의 속기실력이 있어야 하고 초기정확도가 98%를 넘어야 교정 편집 담당속기사가 무리 없이 체시간에 송출이 가능하다.

이것이 제일 관건인 바 1999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된 자막방송워크샵에서 한양대학교 김한우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확도가 99.5%~99.9%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4명 속기사 시스템을 2명 속기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전송된 자막은 자막방송속기시스템을 타고 방송국 에코더(Encoder)로 전송되어진다. 이 2단계까지가 자막방송속기시스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체시간(Delay time)이 1초~4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속기시스템에서는 끝난 후 거의 1초이내에 문자로 찍히지만 전송되어 디코더를 거쳐 송출되고 자막으로 보여지기까지의 시간은 2~4초후로 비쳐진다. 실제 각 방송사에서 자막방송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가 정확도 안정성과 더불어 지체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는가 하는 자막방송속기시스템의 기술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속기 외적인 방송소프트웨어의 문제이다.

3단계는 방송국에 잇는 서버를 거쳐 엔코더로 입력되는 단계다. 엔코더를 통해 방송화면과 자막이 만나고 송출되는 과정을 밝게 된다. 자막방송에 필수장비인 엔코더는 방송국과 자막방송속기시스템을 연결하는 고리인데 기술적으로 보자면 엔코더를 중심으로 자막방송시스템이 한 쪽은 속기시스템이, 다른 한쪽은 방송국 송출시스템이 물려 있는 셈이다.

4단계는 방송송출이다.

5단계는 디코더(Decoder)인데 이 디코더는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내장형은 LG에서 보급하고 있는데 시중에 한글/영문 캡션기능 TV로 나와 있으며 외장형은 (주)한국스테노가 내장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글자/배경색, 오픈자막과 분리되는 기능, 캡션된 문자를 모아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 등이 있는 최첨단의 제품을 생산 판매함과 동시에 그 수익의 상당부분을 청각장애인 단체에 디코더로 기증하여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6단계는 시청자가 화면으로 자막을 보는 것이다.

실제 시간보다 1~4초후에 자막이 나오므로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어색한 면이 있을 것이나 청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라고 한다. 저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속기인들이 "기록보급"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자막방송은 "소외된 청각장애인들의 귀를 대신하는 글소리" 라는 면에서 또 하나의 의미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자막방송 개시의 의미

자막방송은 선진국일수록 빨리 도입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선천성 또는 후천성, 중도실청자, 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이 지진과 각종 재해를 당해,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또한 사회는 점점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령화되고 있는 바 자막방송의 필요성은 점점 더 해져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안세준)가 10여년 전부터 청와대와 관계요로에 자막방송의 실시를 즐기치게 건의한 결과 1998년 정보통신부가 국책사업으로 '자막방송용 시스템' 과제를 채택하면서 자막방송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주)한국스테노가 단독을 CAS속기시스템으로부터 방송국의 엔코더(Encoder)에 도달하는 시스템 연구과제를 훌륭히 수행해 우수과제로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장애인에 관심이 많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국제 통화기금 체제

아래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99년 2월 12일 MBC를 필두로 2월 21일 SBS, 3월 3일 KBS가 본격적으로 국내 35만명으로 추산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방송인 한글자막방송 전파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자막방송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고 비록 초기 전체 방송시간의 약 10%(주당 약20시간)만을 자막방송하는 단계이지만 2000년도에는 50%를 목표로, 또 EBS나 기타 방송국으로 확산될 예정이어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자막방송의 현황

우리나라 자막방송이 이제 막 걸음마를 한 단계인데 반해 선진외국은 저만치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실태를 간략히 소개해 본다.

○미 국○

1973년 ABC방송 뉴스로 시작한 이래 1982년 실시간 시스템의 개발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1958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막의 필요성을 연방법(공법85-905)에 서명한 이래 청각장애인들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청각장애인들이 완전한 캡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1998년 1월에 실시된 캡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과 이행계획을 정했다. 방송 시간표에 따르면 2006년까지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은 100% 캡션 처리된 방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언한 캡션방송의 법적 실용화가 48년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도 미국의 공공TV사는 거의 100% 자막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방방송사는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일 본○

NHK Nippon-TV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막방송 시스템으로 1985년부터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수신기는 약 300만대 보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체 방송의 20%정도이다.

일본인구의 6명중 1명이 65세이상의 고령자로서 난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자막방송의 요구는 절대적인데 비해 구미보다 월등히 낮은 이유로서는 일본어가 상용한자 1945자, 인명한자 284자, 48자의 가나(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사용하고 쉼 수 없을 정도의 동음이자(同音異字)가 있는 문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로 인해 실시간 속기가 발전하지 못하여 실시간으로 자막을 내보내는 서비스가 전무한 것도 특기할 일이다.

또 하나는 자막제작을 맡고 있는 일본자막제작공동기구가 1985년에 발족 하여 15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속기사가 참여하지 않고 일반키보드와 자막발생기를 이용하여 녹화된 테입에 자막을 맞추어 넣는, 즉 영화에 자막처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도 원리이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2002년에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의 자막방송을 위해 지금부터 많은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88년 일본측에서 전자속기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컴퓨터속기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2명의 속기사들이 국회, 법원, 방송국, 자막방송센터 등을 방문한 것과 1999년 10월 한국의 자막방송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컴퓨터 속기를 이용한 자막방송 현황을 세미나 등에서 실연해 보인 데 대한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일본이 실시하지 못하는 실시간 자막제공의 비결이 '속기'에 있음을 알고 자국의 자막방송을 위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2002년까지 50%의 비율, 2005년까지 100%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캐나다 ●

1981년부터 시작한 캐나다는 최고 90%까지 자막방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모든 방송을 자막방송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기 타 ●

뉴질랜드,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이 주당 20~50시간 자막방송을 하고 있으며 위에 열거한 나

라들과 같이 자막방송 시간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5. 자막방송이 속기계에 주는 의미 필자가 본 글의 서두에서 1999년 2월 12일 MBC 전파를 타고 한글자막방송을 개시한 일이 두고 속기계에 있어서 '일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한 까닭이 있다.

우리 속기계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건국후의 헌정사를 속기록으로 남겨 보존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속기'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그 시대에 있어서 사람의 말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최고의 기록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작성의 신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기수요자들에게 즉시 속기록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국회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의원들이 속기사에게 '읽어보라'고 했을 때 그 즉시성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또한 우리 속기계가 법원으로 진출한 후 계속적인 진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번문하는 부담'이 속기사들을 기죽게 하고 격무에 시달리게 했던 것, 속기를 이용하면 '즉시 기록이 나올 줄 알았는데...'하면서 실망한 정책당국자의 탄식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한글자막방송이 속기계에 주는 의미는 '번문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속기했던 두 사람이 속기했던 일단 말소리가 '한 번'에 문자로 나가고 방송시간이 종료되면 속기도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속기계 전체가 나서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칭찬해야 마땅할 것 같다는 말이다.

6. 자막방송이 속기계 미치는 영향

한글자막방송은 기존 속기계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필자도 수필속기를 배워 익히고 또 가르쳐서 많은 후학들을 우리 속기계에 진출시킨 최가 큰 사람이지만 잘한 것을 두고 잘했다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속내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다. 수필속기의 장점과 계승,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상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고 또 한글자막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컴퓨터속기'가 '즉시 속기록(회의록이 아니라)'을 만들어 내는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으니 어쩔 것인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우리가 익히 알 듯이 '수필속기'를 배

우는 것만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다시 또 하나의 속기를 배우야 하는 현직속기사들의 2중고 이다.

또 '컴퓨터속기'를 다시 배우기에는 애로가 많은 고참속기사가 받는 스트레스와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을 필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산다. '팔자가 사납다고....' 하지만 어찌랴! 눈앞에는 실시간(Real-Time)으로 속기를 끝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자막방송은 자막방송으로 그칠 일만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방송국에서는 좋은 음향으로 시청자에게 서비스하고 말에는 순서가 있어서 크게 중복되지 않아 속기하기가 편하다. 그러나 1998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997년 6월부터 시작된 대선주자 토론회나 각 정당, 사회단체, 학자들간의 토론회, 각종 공청회, 심지어 스포츠중계는 질서 있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이 일은 '컴퓨터속기사'들이 PC통신을 통해서 즉시 속기록화 하였다.(오자도 많았지만...)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나 법원을 비롯한 속기수요처에서는 '컴퓨터속기사'를 채용하거나 기존 속기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착실히 '앞으로의 속기업무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앞으로 5년이내에 속기업무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세상은 광속으로 변해가고 그에 대한 대비는 흉내만 내고 말 것인가?

속기하여 즉시 워드프로세서에 한글로 떠 파일로 모아지고 방송화면에 글자로 뜨는 자막방송, 현장에서 속기한 내용이 사무실과 관련기관으로 보내지는 이 시스템이 현재의 속기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 론

필자가 생각해도 글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느끼면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결론은 맺어야 할 것 같다.

외국 속기계는 속기사 양성이 어려워 속기업무를 '어찌 됐거나 속기록

비슷한 것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속기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속기계로서는 위의 현상이 사실 반갑지 아니한가?

일본속기협회는 수필속기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전자속기연구회는 기계속기 및 전자속기(비율이 반반)를 통해 법원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돕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마땅히 속기사가 처리해야 할 자막방송은 일반타자기와 비디오장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속기계의 미래는 이제 '컴퓨터속기'를 하는 후배들이 젊어지고 개척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속기사의 자존심을 세우느라 1시간의 뉴스를 위해서 일체 사전자료나 대본도 보지 않고 아침부터 주요 뉴스를 시청하면서 스크랩하고 용어와 사람이름을 외우고 사전을 뒤적이고 녹화하여 속기연습하는 데 3~4시간을 쓰는 자막방송 속기사 후배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속기계는 전도가 양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후배를 떠나서 내가 배운 속기만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진 속기인들이 만약 있어 새로운 속기방식을 외면하고 채택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속기석은 '어찌 됐거나 속기록 비슷한 것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속기계는 이상한 세계가 될 것이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사고와 의지로 우리 속기계는 '실시간'으로 가야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속기사가 중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직업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속기사라는 자부심을 한껏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사기록의 산 증인이자 가장 공정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열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email : dolbby@hitel.net

Homepage : <http://dolbby.kim.to>

(협회이사)

속기보조용구 소개

ICAN2000 출시

편집실

속기 실무자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면 1)수필속기사의 경우 번문을 위한 워드입력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점이고 2)컴퓨터속기사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번문시간이 필요없다고는 하나 입력시 빠진 부분이나 잘못 입력한 부분의 수정·편집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회가 수필속기사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 수필속기사에게 컴퓨터속기를 교육·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겠지만 재직자의 컴퓨터속기화는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기종을 막론하고 2-3년이 지나도 1분에 320자 이상 입력자는 전국에 불과 서너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힘들여 익힌 속도가 240-250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직접속기보다는 번문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때에 (주)라이브피아에서는 수필속기에서 컴퓨터속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속기실무자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ICAN 2000이라는 신제품을 세계최초로 출시하였다.

ICAN 2000의 기본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즉 발연내용을 정상속도로 컴퓨터에 음성인식시켜주면서 출력시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속도에 맞추어 최고 500%까지 속도를 늦추어 음성으로 출력시켜주는 것이다. 이미 여러 의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디테이션 시스템(딕터폰)이나 음성인식 컴퓨터속기라고 하는 것도 음성을 늦추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음성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속도를 늦추어 주기 때문에 음질이 찌그러지는

등 청취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발연 내용의 無音부분(대개 어절과 어절사이의 음성이 잠깐 끊어지는 부분)만을 임의로 조절토록 함으로써 음질이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S/W제품이다.

(주)라이브피아의 전은실대리는 이 제품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수필속기사는 물론 어떤 기종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모든 컴퓨터 속기사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컴퓨터가 음성을 자동입력 시켰다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음성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컴퓨터속기와 같이 별도의 교육·훈련기간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는 녹음재생을 통한 입력·수정시 녹음테이프를 계속 반복하여 앞뒤로 회전시켜 작업을 해야 하므로 필요부분만을 찾기도 힘들었고 녹음기 조작시간의 낭비와 "삐익삐익"하는 기계음에 신경이 쓰였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처음부터 자기 입력속도에 맞추어 놓고 출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320字 정도의 발연 내용도 워도 200打 정도의 실력으로도 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200%로 늦추어 출력한다 하여도 無音부분만을 200% 늘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 출력시간은 훨씬 짧아진다는 것이다.

넷째는 음성부분은 그대로 두고 無音부분만을 늘려서 출력하여 주기 때문에 음질이 찌그러지지 않아 청취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 외 하우링현상이나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ICAN2000의 기본 원리

1. 無音 부분만을 늘려주는 기능

(늘어진 음성부분을 강제로 당겨 발음이 명확히 들리도록 하는 기능)

3. 無音 부분만을 당겨주는 기능

4. 잡음제거 기능

다섯째는 반대로 無音부분만을 줄여줌으로써 초고 완료 후 원고검토 과정에서는 정상속도보다 빠르게 음성출력시켜 줌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녹음·녹화테이프를 최소한의 부피로 음성 변화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음성데이터를 번문하여 보관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음성데이터 자체만의 D/B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곱째는 녹음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회의 현장의 앰프시설과 직접 연결시켜 놓으면 음성이 자동입력 저장되기 때문에 녹음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녹음기에 의한 녹음의 경우 30~45분마다 녹음테이프를 교체하여 주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녹음테이프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이 제품은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홉째는 부정확한 발언이나 녹음상태의 불량으로 반복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는 현재 각 방송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뉴스프로그램의 문자방송은 2~3인의 입력요원에 의한 끊어치기 입력과정과 1인의 편집 수정요원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컴퓨터속기 능력자가 이 제품을 이용하면 1인에 의한 리얼타임에 근접하는 뉴스속기도 어느정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쏠대리는 또한 이 제품이 국회 및 전국법원의 속기관련 업무는 물론 전산화업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 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회의내용을 녹음상태로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회의장에서는 녹음과 발언자 체크만하고 비회기중 녹취하여 회의록

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의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제품의 출시후 민간에서는 녹취업무를 주로 하는 속기사무소등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음성인식 S/W이기 때문에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문자구조상 컴퓨터속기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본 등 세계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수입에만 의존하던 디터폰 판매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오히려 외화 수입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회의록이 인터넷을 통하여 문자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고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실시 또는 시스템개발 중에 있으나 이 제품을 이용할 경우 문자서비스는 물론 동영상처리가 가능하여 VOD시스템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행

장 미 경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침내 떠났다. 같은 방 식구들이 다함께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부러움을 남기고서 말이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고 날씨는 봄날같았다. 전날 저녁 배낭을 꾸리는 나에게 내일도 비가 올거라는 등 비가 안 와도 오늘 저녁에 내린 비로 길이 미끄러워 산행을 하기가 어렵겠다는 등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던 남편의 입을 일순간 짝 다물게 하는 날씨였다.

발걸음도 가벼웁게 아니, 자동차도 가벼웁게 우리 일행 다섯 명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산으로 힘차게 달려갔다.

바람 한 점 없던 북한산은 조용히 우리를 맞아주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각자 배낭을 짊어진 채 산행을 시작했다. 단풍철이 지나서인지 북한산에는 우리를 빼고는 사람이 드물었다. 전날 비가 온 탓인지 젖은 낙엽이 깔린 산길은 푹신푹신했고 코로 스며드는 젖은 나무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우리를 즐겁게 했다.

한 시간쯤 걸어갔을까? 점심 때가 훨씬 지난 것을 알고서야 우리는 물이 흐르는 계곡 한 켠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는 반찬과 밥은 우리에게 충분히 맛있었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 우리들의 산행은 계속 되었다. 리더가 이리저리 안내하는 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들은 마치 정지된 그림같이 느껴지면서 우리에게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겼다. 아니, 자연을 그림에 비유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모욕이리라.

중간중간 과일을 나눠먹으면서 한참을 숨차게 올라갔을까? 갑자기 우리 앞에 50m가 넘는 커다란 바위가 턱하고 길을 막았다. 당황하는 우리에게 리더는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단숨에 바위 꼭대기에 올라섰다. 아니, 저럴수가! 발바닥에 뭐라도 붙었나?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한 사람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산행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발로 기는 고행이었다. 이 줄이 아니면 난 끝이야. 아슬아슬한 생각을 하면서 네 발로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어이, 잠깐!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사진은 무슨 우라질 놈의 사진이야? 남은 죽겠는데...

그런데 바위코스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시작이었다. 인수봉과 백운대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 숨은벽이란 바위벽이 있는데 우리가 택한 그 숨은 벽코스는 바위타기가 많았다.

가장 힘든 마지막 바위가 우리를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나는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만용이 생기가 시작했다. 중간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온 몸의 힘이 빠지고 그만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주위를 돌아보니 까마득한 절벽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순간 갑자기 막내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야! 어찌나. 누구 나좀 살려줘요!"

간절히 외칠 때 어디선가 내 손을 잡으라면서 나타난 멋진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지나가는 또 다른 등산팀의 일원이었다. 그 멋진 사나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기의 순간을 넘긴 나는 등산하는 동안 절대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웠다.

한 사람, 두 사람 올라가고 드디어 계장님의 차례가 되었다. 항상 여자가 먼저라면서 전에 없이 양보심을 내보이시던 우리의 계장님께서 드디어 바위에 올라가기 직전 하시는 말씀.

"나 떨고 있니?"

숨은벽 정상까지 올라서고 나니 눈앞에 도봉구 시가지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어스름하게 저녁 하늘이 깔리기 시작하고 수많은 빨간 불빛들이 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때 한 걸음 여유를 두고 바라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늦었다는 리더의 재촉에 우리들은 서둘러 하산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호랑이굴 구경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호랑이굴은 지금도 호랑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으시시하였다. 지리산에 반달곰이 많았는데 어찌면 북한산에 호랑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리한 산행 탓으로 아니, 오랜만에 등산을 한 탓으로 내려올 때는 다리의 힘이 모두 풀려 이미 내 다리가 아니었다. 오직 별빛만이 길을 비추고 간혹 들리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벗삼아 캄캄한 어둠속을 우리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서로를 격려해 가며 산을 내려왔다. 저녁식사로 순대국을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너무도 대견해 상기된 얼굴로 무용담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올 때에는 우리가 짚적어 둔 그 토종담을 꼭 먹자고 약속을 했다.

씨암탐아, 기다려라 우리가 곧 간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협회 홍보부장)

이 외로움은 어디에서

이 순 희

면접 당일, 학창시절의 못된 버릇이 그대로 도진 듯 그날도 지각을 하여
헐레벌떡 달리느라 의사당의 무서운 돌기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헉헉거리는 숨을 고를 새 없이 면접시험장에 들어서니 이미 무슨 서류인
가를 걷고 있었다. 염치불구하고 알아본즉 희망부서 조사였다. 기관별·부
서별 특징설명을 듣지 못한 이 모르쇠는 할 수 없이 공란으로 제출하였
다. 그런 까닭에 임명장을 수여받고 보직을 살피는 나의 눈초리는 심상치
않았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속기1과라...

담당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긴장이 스스로 풀리며 일단 반가웠다.
고교시절, 비록 7일천하로 끝났지만 셋째 언니의 속기독학에 격려와 충고
로 동참했던 경험 때문이리라.

어린 눈에 품어두었던 먼 옛날의 신비롭고도 기이한 기호들이 춤을 추며
눈앞에 생생히 펼쳐졌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같은 기호들을 다루는 속기
사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남다른 인연처럼 느껴졌다.

처음부터 호감으로 다가온 속기과에서의 생활은 즐거웠다. 상하간의 허
물없는 대화와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 주는 풍토는 예전의 직장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문화였다. 호흡하는 공기가 자유로운데다 담당업무까지 적
성과 맞아 떨어져 비상하는 새처럼 하루하루가 역동적이고 행복했다.

곧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기지개를 크게 한
번 켜는가 싶더니 속기과 전체가 거대한 발동기가 되어 밤낮없이 물량을
뽑아냈다.

하지만 속기사들은 정신없이 바쁜데 정작 나의 손은 한가했다. 미안한
마음에 설새없이 올려대는 전화만큼은 혼자 차지하려 애썼고 퇴근시간이
되어도 선뜻 일어서지 못하고 분위기를 살폈다.

그러던 것이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상황은 싹 바뀌었다. 이제 일하는 사
람은 편집담당하는 우리 둘뿐이었다. 산더미 같은 원고를 끌어안고 끄끙

대는 동안 둘을 제외한 그들은 휘방꾼에 불과했다.

서서히 외로움이 밀려왔다. 문득 외로움의 실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원인을 꼽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화기에애하게 잘 지내면서도 묘하게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절대적 원인은 직렬의 차이보다는 속기과라는 조직의 특수성에 있었다.

속기과 조직의 폐쇄성은 업무의 전문성과 이동의 경직에 말미암은 것으로 속기인들 사이에는 혈연에 버금가는 유대감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긴 세월을 동거동락하는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진 동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감정은 점심 때에 제일 강해진다. 직원들과 문제없이 잘 지내는 데 점심시간만 되면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다. 나를 빼놓고 모두들 사전약속을 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혼자 식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처량하게 생각할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 점심약속을 잡아놓지 않은 날은 정오가 되는 것이 두려워지기까지 하였다. "약속 없으면 같이 가지" 이 말이 속기과에 있는 동안 가장 듣기 반가운 말이 될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 나 역시 열심히 약속을 잡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 속기과는 약속의 문화가 유난히 발달한 것같이 보이지만 나 홀로족이 두려운 인위적 몸짓인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싶다. 속기인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풍토는 타과에서 온 행정직원들마저 끼리끼리 어울리게 만들어 속기과문화에 대응하게 만드는 것 같다. 업무는 업무대로, 식문화는 식문화대로 분리의 벽을 만든다. 본의아니게 서로가 구별짓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짓듯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을 터이지만 문화가 특수하다 보니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다. 업무 사이클에 맞춰 각기 가능한 도움을 주고 직장내에서만큼은 다각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속기과에 몸담고 있는 직원이면 누구나 조직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면 꼭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음 좋고 진취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삶을 끌어가는 대다수 속기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국회사무처 회계과)

느림에 대한 동경

김 정 아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산식물원에 갔다. 남산은 자주 찾는 편이었지만 주로 타워와 그 주변 시설물들을 이용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 밀려 식물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식물원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싸하게 코를 자극하는 오래되고 묵은 곰팡이냄새, 세월의 흐름이 정지해 버린 듯한 낡은 건물의 귀퉁이 귀퉁이가 나를 놀라게 했다. 순간 바가지머리에 불을 빨갱게 물들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계집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수십년 전나의 어린 모습.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까?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짓는다는 것은 나이 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얼마만에 느껴보는 감동인지.

세상이 모두 변해야 산다고,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앞으로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요즈음 자꾸만 느리게 느리게 뒤에 처지려 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나를 발견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성곽이 남아 있다. 4대문을 연결하며 서울시내를 에워싸고 있던 성곽들이 토막토막 끊어져 있기는 하지만 산허리를 타고 구비구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성곽주변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잘 지어진 모습은 아니지만 주택들이 울망줄망 들어서 있다.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 신도시의 모습이나 강남 일대의 아파트촌과는 도시의 선이 사뭇 다르다. 아마도 요즘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의 하나일 것이다. 동네에 들어서면 웬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오래된 고궁들과 그다지 많이 변화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일까.

아직은 옛날 모습을 추정해 볼만한 형태들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곳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머리 속에 상상해 보는 즐거움이 있다.

오래된 것들, 단지 낡고 지지분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려져야만 하는 것들일까.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았던 남산식물원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고쳐져서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오래전 내가 보았고 냄새 맡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일본의 오이타현(大分縣)에는 100년 전 에도(江戸)시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이 있다. 특이하다거나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관광 명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이 이 마을을 찾아온다고 한다. 오로지 100년 전 옛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추억을 따라, 지나간 옛 것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척이나 스피디하게 현대화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본이지만 그 안에는 옛것을 파괴하지 않고 현대 생활에 지혜롭게 조화시키며 옛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마을(村)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옛것을 무조건 파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의 조화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건축물을 만들고 자연을 개발하는 모습은 수많은 전쟁과 격동기를 거쳐오면서 옛것이 거의 모두 파괴되어 버린 우리 나라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들어 우리가 버리고 파괴했던 옛것들중에 인간에게 너무나도 이롭고 훌륭한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수천, 수만가구가 들어서 있는 아파트의 숲속에서 자란 우리의 후손들은 그 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이 아련한 추억의 한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높이 솟아있는 빌딩의 모습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비디오 등에서 보는 가상의 세계들을 마치 현실 속의 세계인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르고 개발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난 40여년 동안 인류는 그들이 4,000여년간 파괴한 것과 맞먹는 속도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속도로 지구의 자연을 파괴해 나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한 사이버인간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너희 인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모하기만 하기

때문에"라고.

지금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소모하고 먹어치우면 되다는 식의 과욕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이라는 이름의 환경파괴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파괴되고 오염된 지구만을 남겨주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후손들은 병들과 희망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인가, 후손들과 단절된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의 미래가 아니다.

이제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던 20세기를 접고 21세기에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함께 연대하여 공생할 수 있는 삶을 꿈꾸면 안되는 것일까?

미국인들의 작년 한해 동안의 노동시간은 약 1,900시간으로서 일벌레로 소문난 일본인들의 약 1,800시간을 앞질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기계화와 문명의 발달로 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꿈은 더 많은 경쟁, 더 높은 강도의 생존전략의 모색 등에 따라 오히려 점점 더 많이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세계는 20%의 성공한 사람들과 80%의 실패한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 비율은 앞으로 더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을 지도 모른다.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희생과 빈곤의 고통속에서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지갑은 날로 날로 두꺼워지는 모습은 올바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한없이 몰아세우고 끊임없이 개발의 논리를 내세우는 이 흐름이 과연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자연의 황폐화와 함께 인간성마저 황폐화되고 파괴되어갈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도 없고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야 하는 과속의 시대에 제동을 걸어줄 그 무엇이 없는 것일까?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인 자동차도 인명의 사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둔다. 하물며 인간의 문명발달 속도에는 왜 제한이 없는 것일까? 이것이 시대의 빠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의 뉘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21세기는 조금만이라도 느리게 느리게 옆도 보고 뒤도 돌아다 보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북두칠성

송혜경

엄마!

어제밤 북두칠성을 보았어요

오, 그랬니? 어떨든?

별 속에 내가 있었어요

여섯 친구 손잡고 별 숲을 걸었어요

별 숲에서

엄마의 소녀 적 꿈을 만났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소녀의 꿈

세상에서 가장 푸른 물방울처럼

어디론가 끝없이 떠다녔어요

엄마의 꿈 속에서

하늘과 새 소리와 바다가 출렁이고

있을 뿐

엄마의 가슴 속

슬픔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 그랬니?

하늘과 새 소리와 바다가 너희들이었

단다

아주 아름다운 꿈과 같은.

송혜경 회원은 _____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국회속기사로 재직

1995년 5월 중앙일보 시조백일장에서 장원차하

1995년 10월 「시와 산문」 지에 시 '고분이 있는 아파트 풍경'외 9편으로
신인상수상

1998년 하나은행 수필 공모전에서 입상

1999년도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수필 공모전에서 입상

경기도 수원시의회를 찾아서

이 시 정



◀수원시의회 직원들과 함께(좌로부터 첫 번째가 필자)

두꺼운 겉옷이 짐스럽게 느껴질 만큼 폭한 날, 협회 장미경 홍보부장과 수원시의회를 찾았다.

< 5명의 속기사가 속기업무처리 >

1호선 중점역인 수원역에 내려, 내린 쪽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시청까지 가니 요금미터계가 2,300원을 가리킨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번지. 인구 90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33명(장안구 11, 권선구 12, 팔달구 10)의 시의원은 조례를 제·개정하고 집행부인 시의 행정사무를 감·조사한다. 의회 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 아래에는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이 있다. 의회 청사는 아직 따로 없고 시청의 배려로 시청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

다.

누가 출입문 밖까지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는다.

"국회에서 오셨어요?"

"이화경 씨세요?"

전화로만 몇 번 통화를 했던 이화경씨의 모습이 궁금했는데 어깨를 덮는 생머리에 눈이 큰 미인이었다. 사무국 사무실은 2층에 있고 속기사만 따로 3층에 있다고 우리를 그리로 안내한다. 원래는 2층 사무실을 같이 쓰다가 97년 7월경 지금의 3층 의원자료실에 딸린 옆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문을 열자 사무실 안에는 햇살이 가득하다. 들어서니 방 분위기가 무척 아늑하다. 창문 가득 들어오는 햇빛때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속기사들의 가족 같은 친밀함이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던 것이다. 91년 초대의회가 구성될 때 같이 들어온 임용춘, 김미해, 이화경 속기사는 동갑내기로 서로서로 집안사정, 아니 속마음까지 다 알 정도라고 한다. 수원시의회 속기사는 모두 5명이다.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으로 기가 막힌 비율이란다(이것은 임용춘 속기실장의 말임). 오영란 씨와 김종범 씨도 각각 8년과 6년의 경력자다.

인사를 간단하게 나누고 나서 먼저 회의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기 업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 경우 매년 11월25일에 소집되어 12월29일까지 35일 동안이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임시회의 경우 1회기당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45일 이내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99년의 경우 6번의 임시회(177회~182회)가 열렸는데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이었다고 한다.

본회의는 속기사 전원이 1인1조로 20분씩 기록을 하고, 4개의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만 본회의에 준해서 하고 자치기획위원회, 재경보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명씩 불박이로 맡아서 한단다. 한 위원회를 한 명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면 일의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

문에 안건이 많은 경우는 각두기가(위원회를 맡지 않은 두 사람을 각두기라고 불렀다) 교대를 해 준다고 한다. 위원회가 안건에 따라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각자의 몫이냐고 물었더니 일찍 끝난 사람이 계속되고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교대를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은 위에서 누가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속기사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란다.

속기라는 업무가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한 자라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듣는 것에 집중시켜야 하는 그 긴장감 때문에 보통 피로한 것이 아닌데, 그래도 똑같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지, 어떤 위원회는 일이 없고 어떤 위원회는 진지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속이 쓰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기자에게, 하여튼 서로가 잘 알아서 한다고 아주 쉽게 대답한다. 서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력과 가족 같은 친밀함이 괜히 부럽기도 했다.

회의록 작성은, 번문을 하고 교정을 보면 다른 두 사람이 다시 교정을 봐서 3번의 교정을 본다고 하는데 교정이 끝난 회의록은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는 의원 2인의 서명을 받고, 상임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는 위원장의 서명을 받고 발간한다고 한다. 정기회 회의록은 외주를 주고 있고 임시회 회의록은 청내 인쇄실에서 맡고 있는데 정기회의 경우는 3,000만원 정도, 임시회의 경우는 100여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의록은 각 의원 및 집행부의 각 실·국장, 그리고 도서관과 각 구청으로 배부한다고 한다. 총 발간 부수는 50부 정도. 번문용으로 컴퓨터속기 도입 다음에는 기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던 컴퓨터속기 재교육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원시의회는 5명 모두 수필속기사이다.

"컴퓨터속기를 도입해 보겠다고, 우선은 번문용이지요. 교육기관과 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안으로 올렸어요."

임용춘 속기실장의 말이다. 97년 7월부터 하루에 두 시간씩 3개월 동

안 학원에 나가서 컴퓨터 컴퓨터속기를 배웠단다. 어떻게 컴퓨터를 선택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뭘로 할까 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비교해 보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도 그 중에서 컴퓨터가 기계값이랄까 교육여건이랄까 그런 것들이 맞아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

컴퓨터를 도입하고부터는 일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었고 인쇄비용도 40%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컴퓨터속기 도입 이전에는 손으로 써서 인쇄소에 넘겨 타자수들이 일일이 다 활자로 옮기느라고 그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인쇄소에서 제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었다고.

점심을 먹기 위해 옮긴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속기직의 일반직화 이야기가 나왔다. 오래도록 해결도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민망했다. 지방속기사협회 홍보국장을 맡고 있는 이화경 씨 말로는 거의 해결의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된 상태란다. 사실 그동안 속기협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한번 제도화된 직제나 관행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속기사보다 훨씬 전부터 일반직화를 부르짖었던 사회복지사(별정직)가 99년, 그러니까 작년에 드디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제 속기를 단순한 기능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 부족만을 탓하기도 지쳤다. 협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때만이 좋은 결과가 오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협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언젠가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통합시킨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되물어왔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주성 회원이사께 물어보았더니, "지방의회 속기사들을 대상으로 협회 차원에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회의록체제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245개 지방의회 회의록 전체를 비교한다거나 검토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국회회의록이 하나의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인터넷에 회의록을 올리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서

로의 회의록을 비교·분석,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다들 잘 하고 있지만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해 주었다.

탐방을 끝내고 일어나기 전에 사무실을 죽 둘러보다가 속기를 16절지갱지에 한 것을 보고 장미경 홍보부장이 "속기노트 하나 만드세요" 했더니 임용춘 속기실장이 "속기노트 뭐 필요합니까?"하면서 손으로 컴퓨터속기 치는 시늉을 해서 한바탕 웃었다.

헤어질 때가 되자 얘기를 나눈지 몇시간 안되었는데도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속기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애뜻한 동지애이리라.

아쉬운 마음으로 1월 29일 열릴 총회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며 수원시의회 사무실을 나왔다. 이번 지방의회 탐방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원시의회의 이화경 씨를 소개받고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다른 의회는 발전적이고 변화해 가는 모습들이 기사화되던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걱정이예요"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의 말이었다.

수원시의회는 열악한 근무 조건하에서도 신속한 회의록 발간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찍 컴퓨터속기를 도입한 것도 그렇지만, 곧 홈페이지에 회의록 서비스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실제로 서비스된 시의회 회의록을 읽고서 "아, 그 문제는 이렇게 되었구나.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구나"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회의록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전철에 몸을 실었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 편집기자)

친구에게 쓰는 편지

하늘 무거움을 느끼게 된 날,
비로소 훌쩍 자라버린 내 모습을 봤다
언제나 높고 푸르기만하던 예전의 그 하늘 밑이 아닌,
삶의 부대낌에 익숙해져갈수록
먹구름 머금은 하늘빛이 더 편해지는 이유를 나는 모른다
그만큼 물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걸까?

친구야
조금씩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싫은 거로구나 생각되기 시작할 무렵, 오래된 습관처럼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불만들
어느 때쯤인지 잘은 모르지만
눈덩이처럼 핑계들은 많아져만 가더라
초라해져가는 내가 될 수록
친구이름은 나의 동경
자주 만날 수 없음을 이유로 많은 애길 들어주기만 하던 니 사진
내 아집도반쯤 섞여 있는 친구모습은
또 다른 내가 되어 밤을 지키고
금새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
오늘도 꼭꼭 재운다.

친구야
이제는 세상의 핑계들로 날 표현하고 싶진 않다
자유롭게 떨어져나와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
어릴 적 꿈으로 많이 보았던 어른의 모습으로

수원시의회사무국
이 화 경 드림

되돌아본 한국속기50년

편집실

한국속기의 역사가 50년이 넘었다. 작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속기50년사'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속기계의 나이 50세에 즈음하여 그동안 韓國速記界에 발표된 여러 가지 속기법식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이하는 '한국속기50년사'에 기록된 속기법식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1. 해방 전에 발표된 우리말 속기법

일제치하에서 발표된 속기법식들은 시도 자체에 그쳤다. 이는 실용화되지 못했던 점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당시 우리말과 우리글 자체의 존립마저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회적 여건 때문이었다.

1) 조선속기법

기록에 의하면 우리말 속기가 처음 창안 발표되었던 때는 한국을 떠나 미주 하와이로 이민간 이민 2세 박여일 이란 사람이 1909년 조선속기법을 창안하여 시카고에서 속기학 강의를 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신문인 '신한민보'에 발표하면서부터다. 박여일의 조선속기법식은 점·직선·곡선과 선의 장단 및 굵기로 문자의 변화를 이룬 正圓派이다.

2) 날적말 적기 약기법

1923년 중국 상해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김두봉이 망명지인 상해에서 출간한 문법서 '김도 조선말본' 제2부록에 '날적말 적기 약기법'을 실었다.

'날적말 적기'란 날개, 즉 새가 나는 듯 빠르게 적는다는 의미이며 약기법은

그대로 축소된 문자로 글자를 줄여서 속기로 쓰는 방법을 뜻한다.

이 날적말 적기 약기문자는 1597년에 발표된 영국의 브라이트식처림 水平名小線의 자음에다가 垂直名線의 모음을 적용한 부호문자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3) 방익환·이원상의 조선어속기술

국내에서 우리말 속기법이 가장 먼저 발표된 때는 조선일보 방태환의 권유로 도입하여 일본의 다쿠사리식을 연구한 방익환·이원상 등이 공동으로 조선어 속기술을 발표한 1925년이다. 이 조선어속기술은 각 자음선에 각 방향있는 크고 작은 타원으로 된 모음을 가하는 식이다.

4) 우리말 속기법

1927년에 김한터가 '일간 신조선'지 1월호에 우리말 속기법을 발표하였다.

< 속기의 필법 >

속기의 필법	특 징
정원파	자(尺)와 컴퍼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기하학적 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하선파라고도 한다. 이 필법은 정원을 등분하여 그 등분된 원의 둘레와 등분한 직선들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점·원·타원·갈고리 등의 정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속기법식은 대부분 이 필법을 이용하고 있다.
사선파	로마자와 필기체를 정리 右上의 사선을 기초로 그 사선의 字頭나 字尾에 갈고리나 원 또는 획선을 붙여 정리한 것이다.
타원파	정원파와 사선파의 양자를 절충한 필법을 취하고 있다.
문자파	이상 3가지의 필법과 달리 일반문자의 획선을 중요시하여 일반문자의 초서화 또는 생략화한 것을 그대로 사용코자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필법은 실제로 쓰이는 획선은 다르다 하더라도 속기방식의 발전과정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나타난 형태이다. 구미에 있어서도 정원파가 나타나기 이전의 속기방식은 대부분 이 필법을 취했다.

우리말 속기법은 한 자음선에다가 오른쪽 방향의 작은 선 혹은 작은 타원을 가하는 것인데 그 특징은 글자선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음선 중에 '값'자에는 小字뿐이고 大字가 없는 것이 주목된다.

5) 조선속기술

엄정우가 '일간 동광'지 7·8월호에 조선속기술을 발표하였다. 한글 자음선형에 가까운 각 방향곡선을 자음으로 하고 各方向大小直線을 모음으로 하여 初聲複用으로 종성을 쓰는 식이다.

6) 조선어속기법

1934년2월 '동래고보校友會誌'에당시 동래고보 학생이었던 김용호가 조선어속기법을 게재하였는데 이 속기법은 횡서가 아닌 종서라는 점이 특징이다.

7) 강준원의 조선어속기술

위의 속기법은 모두가 속기의 기본문자 소개에 불과하였고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 발표된 속기법은 1935년에 발표된 강준원의 조선어속기술이다. 이 속기법은 단획식 타원파로 미국의 그레그식과 유사한 속기법이다. 그러나 이 법식 또한 일제치하에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2. 해방 이후 40년대의 속기법식

1940년대는 일제하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법식들이 앞다투어 속속 발표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때 발표된 법식들은 그 창안자들이 미군정의 입법자문기구인 남조선과도입법 의원이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당장 배출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속기법을 기초로 하여 급조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속기법 자체에 결함도 많았다.

1) 일파식

1946년6월20일 장기태가 '서울신문'과 그 밖의 신문에 발표함과 동시에 '일파식속기학개론'을 출간하였으며 동년 9월 종로3가에 일파식우리말속기사양성

소를 개소하였다.

2) 조선식(한국식)

1946년10월12일에 박 송이 주간으로 있는 주간 '학생신문'에 조선어속기자연맹 결성광고가 게재된 데 이어 동년 10월19일부터 6일간 '학생신문'에 '조선어속기에 관한 연구'라 하여 박 송의 조선식(후에 한국식으로 개칭)이 소개되었으며, 12월25일에는 조선교육연구회 간행으로 박종원의 조선속기가 출간되었다.

3) 중앙식·해방속기(동방식)·고려식 속기법

1947년7월 박인태가 중앙식을 창안하여 을지로 5가에 중앙속기학원을 개원하였으며, 1948년2월 이동근이 해방속기(현 동방식)을 창안하여 해방속기학원을 개소, 동년 8월 김천한이 고려식 속기법을 발표하여 효창동에 고려속기학원을 개원하였다.

3.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속기법식

1) 세종속기법

김천한의 고려식 속기법이 발표된 후 얼마간 새로운 속기법 발표가 뜸하다가 1950년2월3일에 김세종이 세종속기법을 발표하고 주로 호남지방에서 속기사 양성에 힘썼다.

2) 남천식

1956년 들어 남상천의 남천식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3) 의회식

1968년2월3일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속기사양성소가 다시 개설되고 동년 5월 20일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 설치와 함께 연구작업에 들어간 결과 1969년1월10일 의회식이 창안·발표되었다.

의회속기법식이 다른 법식과 뚜렷이 다른 특징의 하나는 수사의 기법이다. 다른 속기법식에서는 모두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회법식은 다획의 아라비아 숫자를 단획화하여 운필이 속도를 도모하였다.

4. 컴퓨터속기

컴퓨터속기는 자판의 여러 개의 자음과 모음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한 타로 처리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약자화하여 여러 글자를 한 타에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1) 기계속기

1979년 미제 속기타자기인 스테노타이프의 영문글쇠를 한글글쇠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 한글 속기타자기를 선보였으나 실용면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후 1990년 초 허 현이 미제기계인 스마트 라이터를 도입하여 속기타자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속기타자기로 입력하면 속기부호가 컴퓨터에 찍혀서 자동번문이 되는 방식(CAT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허 현은 영어 프로그램을 한글프로그램화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허현은 타자속기를 컴퓨터속기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른바 헤크닥(HEKDAK)이다.

2) 본격적인 컴퓨터속기의 보급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법이 제대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즉 1994년초에 정상덕·최광석·손석력 등이 워드픽처(CAS속기)를, 안문학이 감퓨터를, 박해동이 1996년에 모아치기를 내 놓으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 방식의 특징으로서는 워드픽처와 감퓨터가 애초부터 키보드의 자판배열이 일반키보드의 것과 다른 독자적 속기용 기계를 지향한 반면 모아치기는 일반키보드의 자판배열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합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1994년 정상모가 개발한 스피드워드(빠른손워드속기)는 모아치기의 방식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램상주프로그램을 지향하면서 독자적인 워드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방식과의 차이점이다.

5. 수필속기의 기본문자와 컴퓨터 속기의 자판 배열

1) 수필 속기 기본문자

가. 해방 전 해외에서 발표된 우리말 속기이 基本文字 原型

조선속기법(박여일 창안)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ㅂ

날적말 적기 약기법(김두봉 창안)

子 音	ㄱ	ㄷ	ㅂ	ㅌ	ㄴ	ㅅ
	ノ	ㄷ	ㄷ	ㄷ	ㄷ	ノ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例) 가 너 도 루 문 참
 T J ㄷ ㄷ ㄷ ㄷ

나. 해방 전 해외에서 발표된 우리말 속기법의 基本文字 原型

조선어속기술(방익환·이원상 창안)

子音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나'행 나 너 노 누 느 니

우리말 속기법(김한터 창안)

例) 난 돌 불 죽

조선속기술(엄정우 창안)

子音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조선어속기술(강준원 창안)

子音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ㅍ(ㅋ) ㅌ(ㄷ) ㅍ(ㅍ) ㅍ(ㅍ) ㅍ(ㅍ) ㅍ(ㅍ) ㅎ

다. 해방 후 발표된 速記法式別 基本文字

①逸波式

- 創案者 : 張基泰 ○ 발표연월일 : 1946년 6월 20일
- 流 派 : 正圓派(幾何線派)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② 韓國式

- 創案者：朴 松 ○ 발표연월일：1946년 10월 19일
- 流 派：正圓派(幾何線派)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③ 東邦式

- 創案者：李東根 ○ 발표연월일：1948년 2월
- 流 派：正情圓折衷派(單劃式)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④ 高麗式

- 創案者：金天漢 ○ 발표연월일：1948년 8월 15일
- 流 派：正圓派(幾何線派)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⑤ 世 鍾 式

- 創案者：金世鍾 ○ 발표연월일：1950년 2월 3일
- 流 派：正圓派(幾何線派)

⑥ 南天式

○ 創案者：南相天 ○ 발표연월일：1956년 3월 20일

○ 流 派：正圓派(幾何線派)

基本文字

(숫자는 mm임)

1. 2. 3. 4. 5. 6. 7. 8. 9. 0

⑦ 議會式

○ 創案者：議會速記法式 研究委員會

○ 발표연월일：1946년 6월 20일 ○ 流派：正圓派(幾何線派)

2)컴퓨터 속기의 자원 배열

가. CAS

나. 빠른손워드 속기

미국 상원에서 공식회의록을 발간하기까지

Walter J. Stewart

(상원비서관)

1. 비공식기록이 공식회의록으로 인정받기까지 미국 상원의 모든 회의내용은 배석한 상원속기사(an official reporter of debates)에 의해서 기록된다.

상원속기사는 10분간 교대로 기록을 하고 즉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기록한 것을 번문한다. 회의 다음 날이면 회의했던 전 과정이 의회 회의록(the Congressional Record)에 나타나고 그 회의록은 의원사무실, 도서관 그리고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배포된다.

워싱턴포스트誌W가 인쇄의 기적이라고, 또 뉴욕타임즈가 인쇄업의 경이라고 경탄한 이 놀라운 작업은 상원 그 자체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녔고 속기사들은 상당기간 회의를 기록하는 기관으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연설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랐다. 헌법상 상원은 단지 의사록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었고 상원의 서기가 기록한 의사록은 법안이나 결의안의 제출·수정 또 표결 등을 기록한 회의기록부를 다듬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의사록은 다시 만들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회의내용의 요약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헌법에는 상원이 공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가 생기고 처음 6년 동안 상원은 거의 비공개로 열렸고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기자들을 위한 일반 방청석도 없었다. 심지어 국민투표를 위해서 회의장을 공개했을 때에도 상원의원들은 공식적인 기록원을 고용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가 상원도 하원처럼 신문에 자기들의 발언내용을 신기 위해 비공식적인 개인속기사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상원의원들은 이 제도가 정부예산을 쓰지 않고 또 공식적인 그들의 발언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원의 소식을 널리 알리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기록되는 회의록의 질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문기자들이 회의내용을 기록하려는 첫 시도를 했다. 속기술이 여전히 불완전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기록들은 때때로 회의내용과 일치되지 않았고 부정확했다. 기록원들은 청취하기가 어렵고 또한 발언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1차 의회에서 하원의회의 회의록을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발간했던 토마스 로이드는 발언자들을 '대머리'나 혹은 '파란코트와 가발의 사나이' 등으로 묘사했다. 제1차 의회의 하원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로이드가 때때로 기억이나 상상으로 그의 기록공백을 메꾸었다고 생각했다. 매디슨이 지적한 것처럼 의원들의 개인기록원들이 실수를 하는 한 회의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의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점차 공식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많은 부담을 갖게 된 상·하원 의원들은 개인기록원을 고용하려 했다.

2. Gales와 Seaton

(게일즈와 씨튼) 1800년11월 의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옮겨간 후에도 회의기록은 불완전했다. 1802년 상원은 회의장에 속기사 또는 기록원을 고용하는 투표를 했는데 이것은 의회가 제퍼슨 행정부와 다수당인 제퍼소니안(Jeffersonian) 공화당이 공식기구로 인정된 신문인 "내셔널 인텔리전서(National Intelligencer)誌"의 소유자인 사무엘 스미스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스미스는 조셉 게일즈(Joseph Gales)를 고용하기 전까지 혼자서 회의기록을 담당했는데 후에 인텔리전서誌의 편집인 자리를 이어 받았다. 1807년부터 1820년까지 조셉 게일즈는 상원의 유일한 기록원이었으며 그의 파트너인 윌리엄 씨튼(William Seaton)은 하원을 담당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회의를 기록할 다른 기록원들을 고용했다. 1819년초 상원과 하원은 Gales과 Seaton을 공식적인 회의록 발간자로 선출했다.

그들은 선출직으로서 법안, 결의안, 법 그리고 다른 공식문서들을 발간했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이 공식적인 관직으로 인해 비공식적으로나마 회의기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회의내용도 National Intelligencer誌의 뉴스 기사들 가운데 하

나로 다루어졌다. 회의내용은 전국의 신문사에 보내져서 다듬어졌고 가장 흥미있는 회의는 재인쇄했다. 1824년에 Gales나 Seaton은 "Register of Debates誌"를 창간했는데 그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라파이에 후작의 워싱턴 방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표현에 신선한 자극과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Register誌는 다른 일반신문들과는 달리 전적으로 독립된 의사록을 발간했다. 이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데 이는 Gales나 Seaton이 신문이 발간되기 전에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한 언론기자가 냉소적으로 말했듯이 의원들이 말한 그대로 회의록이 발간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1833년 Gales와 Seaton은 1789년부터 1824년까지의 초기의사록인 'Annals of Congress'를 발간하기도 했다.

상원의원들의 Register誌에 대한 신뢰와 Gales와 Seaton이 상원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발언을 편집하도록 허용한 예는 1830년 로버트 Y. 헤인 상원의원의 유명한 답변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당시 Webster상원의원은 그의 발언을 기록하기 위해 Gales를 친히 초청했다. 다른 신문들은 Webster의원이 단지 몇 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사실만 보도했기 때문에 Webster의원은 Register誌가 자기의 모든 발언을 보도해 주기를 기다렸다. Gales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기록한 것을 그의 아내에게 정리하게 했는데 Webster의원은 그 결과에 실망했다. 그가 말을 받아적는 바로 그 행위가 Webster의원 발언의 멋과 감정적인 호소력을 감소시켰다. Webster는 Gales부인이 정리한 抄本을 받아서 한 달 이상 걸려 완전히 다시 쓴 다음에 발간하도록 했다.

Webster의 전기작가 중 한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몇 세대에 걸쳐 수천명의 학생들이 기억할 헤인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장황한 Webster의원의 답변은 Webster가 상원회의에서 말했던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Webster가 후에 의도적으로 수정한 문학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3. The Congressional Globe

1830년 Washington Globe誌라는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Gales와 Seaton은 회의록 보도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했다. 프란시스 P.Blair와

John C. Rives가 편집하는 Globe誌는 앤드류 잭슨 행정부의 공식기구로 출발했고 1833년 잭슨의 민주당이 의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후에 Blair와 Rives는 의회 출판자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Congressional Globe誌를 창간해서 Register誌와 경쟁하게 되었다. 이 두 신문사는 Gales와 Seaton이 공식기관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긴 1833년부터 Register誌를 폐산한 1837년까지 회의록을 발간하였다.

Register誌에 대한 불만은 폐간되기 오래 전부터 쌓여가고 있었다. 잭슨의 민주당은 Register誌를 부정확하고 때로는 기록물을 발간해서 배포하기 전에 자신들의 연설이나 연설문의 수정을 꺼려한다고 비난했다.

가끔 Register誌에 나온 연설중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편집자들은 연설을 요약해서 몇 줄로 줄이기도 하고 특히 政敵의 연설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삭제하기도 했다. 때때로 기록원들은 회의록에 연설방식이나 발언내용에 대해 발언자를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논평을 신기도 했다.

Register誌와 같이 Congressional Globe誌도 그 母신문과 분리된 형태로 발간되었다. 회의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Washington Globe誌의 편집자들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원들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Register誌의 편파성에 항의했던 것처럼 휘그당은 Globe誌가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불만을 표시했다. 휘그당의 한 상원의원은 Globe誌를 신뢰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의원은 Globe誌의 기록원들은 "상습적인 회의위조자"라고 불렀다. 불만이 점차 고조되자 Globe誌의 기록원들은 화가 난 의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무기를 몰래 숨겨 가지고 들어갔다.

兩黨에서 불만이 나온 후에 상원은 회의록을 정확하고 어느 당에도 치우치지 않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840년 특별위원회는 각 당마다 똑같은 수의 기록원을 고용해서 정확히 기록할 것을 맹세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다.

1845년 Washington Globe誌가 정부의 신뢰와 후원을 잃고 폐간된 후 Congressional Globe誌는 어느 당에도 치우치지 않고 발간을 계속했다. 의원들은 Globe誌의 보도에 상당히 만족해 했고 1846년 상원은 의원들이 자기 발언을 수정할 수 있고, 기록원들이 정치적 논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 상원의원들에게 Globe誌 12부씩을 구독하도록 함으로써

발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848년 상원 속기사들과 그날그날의 회의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다음 날 아침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은 Globe誌는 준공식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4. 속기술의 진전

속기술이 원시적이고 부정확했을 당시에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의 오류들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했다. 기록원들의 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다음 Intelligencer誌와 Globe誌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한 의원이 불평했듯이 연설을 준비하고, 연설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발간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은 지루하고도 힘든 일이었다.

1848년 상원에서 처음으로 회의 기록원들을 고용한 것과 동시에 피트만 식 음성학적 속기의 발전은 기록원들이 보다 정확한 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뉴욕트리뷴誌는 Dr.James A.Houston이 다니엘 Webster상원의원의 연설을 기록했을 때 그 놀라움을 이렇게 보도했다. "그는 Webster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모두 적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칭찬만 한 것은 아니었다. 보스턴 저널誌의 워싱턴 특파원 Benjamin Perley Poore는 의회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적는 것은 의회연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불러와서 의원들이 더 이상 연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고 또 회의록에 기록된 것을 거의 읽지 않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표음속기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록원들은 회의장에서 직접 받아쓰지 않았고 전문적으로 받아 적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때로는 동시에 두 사람에게 받아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원의 느슨한 회의진행은 이 표음속기방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860년대에 기록원으로 일했던 Theodore Shuey씨는 "하루는 워싱턴에서 만찬이 P.M 3시까지 계속되었는데 Globe誌의 기자들은 다음 날 정오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혼자서 세 시간동안 쉬지 않고 기록하는 거실습지는 않았지만 무난히 회의록을 발간할 수 있었다."고 후에 회상했다.

상원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모든 회의를 기록하려는 목표달성을 위해 상

원 기록원들은 최신 속기장비를 이용했다. 1893년 NewYork Sun誌의 통신원이었던 Julian Ralph는 회의장 밖에서 한 상원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회의장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다. 기록원들은 상원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열띤 연설을 받아 적고 있었다. 그는 이 인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만약 워싱턴장군이 다시 살아나서 그 회의장으로 들어온다면 그는 의사당이 정신병원으로 변했고 또 이 방은 정신병동 중의 하나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기록원들이 가장 현대적인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원들 중 몇몇은 뱀처럼 생긴 긴 고무튜브를 귀에 꽂고 타자기 앞에 앉아 있고 의원들은 옥외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처럼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손에 몇 장의 종이를 들고서 큰 소리로 읽었다. 이런 소란속에서 기록원들은 속기로 적은 것을 축음기에다 읽고 있었다. Mill의원의 연설을 읽고 있던 한 기록원은 영어 古語의 비유와 단조로운 리듬으로 읽었으며 긴 고무튜브를 귀에 꽂은 기록원은 다른 축음기로 들으면서 가장 시끄럽고 이상하게 생긴, 즉 타자기로 기록하고 있었다."

5. 기록원의 長들

상원은 공식적으로 기록원을 고용했는데 처음에는 계약제로 그리고 1873년 후반에는 상원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회의장의 열띤 토론속에서도 자신들의 임무를 효율적이고 무리없이 수행해왔다고 상원의원 Robert C. Byrd는 말했다.

제일 처음 기록원들을 지휘한 것은 Richard Sutton이었는데 그는 National Intelligencer誌에 상원의 회의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이미 영국의회의 회의내용을 보도한 영국인으로 Congressional Globe誌의 기록원들을 지휘했다.

1869년 Sutton이 은퇴한 후 Murphy가 그의 직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14살부터 상원회의를 보도한 아일랜드 이민자였다. Murphy는 1873년까지 계약직 기록원들을 지휘했는데 이때 의회에서는 정부인쇄소에서 발간되는 Congressional Record誌가 창간되었다. 1분에 200단어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Murphy는 상원에서 公式記錄員長으로 선출되어 1896년 사망하는 날까지 계속 기록했다.

그가 사망한 지 4일 후에 상원은 그의 동생 Edward Murphy와 Theodore Shuey를 공식기록원으로 선출했다. Edward murphy는 1919년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계속 기록했고 Theodore Shuey는 1933년 사망한 달 전까지 상원에서 일했다. 188년부터 1933년까지 65년간 상원 기록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Shuey는 하루도 업무를 거르지 않았고 '미국에서 가장 민첩한 손과 가장 빠른 두뇌의 소유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타임誌는 그의 사망에 관한 기사에서 "Shuey는 Congressional Record誌에 보도되기 전에 많은 과장된 연설을 편집하고 다시 썼다. 그를 기리기 위해 상원의원들은 지난 주에 1분간 말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밝히고 있다.

Murphy家の 세 번째 사람인 James.W.Murphy는 1904년에 상원 기록원이 되었고, 1934년 기록원장으로 임명된 후 1960년 은퇴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했다. 이따금이긴 하지만 하루종일 회의가 계속되어도 Murphy는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상원의원들은 말한다. 1950년 원자력에너지통제에 대한 회의시 75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Murphy는 4일 동안 꼬박 회의장에 있었고 잠시 선잠을 잔 것이 전부였다.

John D. Rhodes가 Murphy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1963년 은퇴할 때까지 기록원으로서 총 45년간을 재직했다. 그 후 Gregor MacPherson, Charles Drescher, G.Russell Walker, 그리고 C.J(Chick) Reynolds가 기록원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6.편집자로서의 기록원들

상원의 기록원들은 단순히 재판과정을 기록하는 법원기록원들과는 다르다. 1917년 Shorthand Writer誌는 축약된 증언내용을 엄정하게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범위기록원들과 달리 의회기록원들은 결함이 있는 즉흥연설을 編輯, 詳述 또는 재정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평함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기록을 구분지었다.

상원의원들과 기록원들 사이에는 불완전한 발언이 신문에 실리는 것은 그들의 별거벗은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Shorthand Writer誌는 "상·하 양원의원들이 그들의 연설을 기록하는 기술과 영리함에 있어서 기록원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 해 동안의 기록경험은 기록원들을 능숙하게 만들었다. 문장구

조, 단어의 선택, 생각의 단면을 능숙하게 변형시킴으로써 대수롭지 않은 연설도 정말 훌륭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또 이 신문은 회의기록원을 사진 수정업자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결합이 있거나 거친 글을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개개인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다"

상원 회의기록원들은 정치, 경제, 기술 혹은 상원에서 토론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 기록원들은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세익스피어나 성경구절까지도 인용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성경책은 루지애나州 Huey Long 상원의원이 선물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회의 기록원들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원의원들이 준비한 원고를 읽다가 단어, 구 혹은 문장을 빼먹었다면 기록원들은 그 부분을 삽입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원의원이 일부러 삭제한 것인지 등등, 기록원들은 각 상원의원의 개인적인 습관이나 성향을 알 필요가 있었다. 또 기록원들은 상원의원들이 준비한 연설 이외에 추가한 부분도 준비된 연설과 같이 유사하게 처리해야 했고 한두 줄밖에 읽지 않은 것도 회의록에 추가하여 긴 연설을 한 것처럼 처리해야 했다.

또한 기록원들은 오자나 잘못된 문법을 찾아내야 했고 회의장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You'라는 단어의 사용은 정확한 회의록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그 당시 'You'라는 단어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회의장에서는 의원들 상호간의 연설이 아니라 의장을 상대로 연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을 마친 후 기록원들은 그 원고의 마지막 편집과 체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록원장에게 제출했다. 기록원장은 다른 상원의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나 개인의 신상내용이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때때로 그러한 편집과정이 Congressional Record誌가 회의록을 축약보고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눈으로 보면 이따금씩 생략되어지는 것은 사실 극히 일부분이고 대신 Record誌는 법률안 全文, 의원들의 전체 진술내용, 특별한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사설 그리고 상원의원들이 제출한 다른 많은 안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회의장에서 말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했다. 이러한 신속한 방법은 회의록 발간을 진척시켰고 훗날 법률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남겨 두었다.

상원의원들은 가끔씩 회의 기록원들로부터 받는 편집상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위대한 연설가 중의 한 사람인 일리노이주 Everett.Mckinley.Dirksen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업무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Congressional Record誌가 읽기 쉬운 문건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경이감을 금치 못한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발언할 때 종종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은데 기록원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바로 잡혀지고 항상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이다."

7. 의회기록

1873년부터 정부인쇄소는 Congressional Record誌를 발간했는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형식이 발전되었다. The Joint Committee On Printing에는 Record誌의 형식을 감독할 권한이 주어졌고 다양한 회의록 규칙이 만들어졌다.

사설, 기사, 수필, 시 그리고 다른 정리된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Congressional Record誌에 실려 발간되었지만 시사만화나 다른 삽화는 금지되었다. 1913년에 뚜렷한 예외가 일어났는데 이때 사우스 캐롤라이나州的 Benjamin Tillman상원의원이 Record誌에 NewYork World誌의 시사만화인 "Senator Benjamin's ALLEGORICAL COW"를 발표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 행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Record誌를 아주 괴상한 신문으로 만들려고 위협했다. 그후로 만화는 실리지 않았다.

최근 수년 동안 상원회의에 있어 약간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확성기를 도입했고, 1986년초에는 TV 카메라가 모든 상원의원들의 연설을 비디오테잎으로 녹화했다. 또한 1980년대에 남아 있던 속기사들은 은퇴를 했고 지금 모든 회의 기록원들은 속기기계를 사용했다.

1989년부터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친 후 Computer Assisted Transcription System(CAT)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그들만의 독특한 속기부호사전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해야 한다. 공식기록원들이 상원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이 기계는 속기부호를 저장하는 컴퓨터칩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속기부호는 곧바로 영어로 전환된다.

현재 의회 회의록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CAT방식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회의록이 신속하게 정부인쇄소에 전달되도록 했다. CAT방

식의 도입은 의회 회의록 발간의 현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였고 동시에 자동화는 출판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기술외에도 현대의 기록원들이 회의를 기록하는 방법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그들 자리에 앉아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연설자들을 따라서 기록원들이 이리저리 이동해야 했으며 때때로 회의장 통로에 의원들이 복적대면 의원의 발언을 기록하기가 어려웠고 쓸데없는 소음은 기록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켰다.

기록원들은 의사진행방해나 하루 종일 회의가 계속될 때도 끝까지 앉아 있어야 하고, 회의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미국 각 지역의 다양한 방언, 억양 그리고 연설의 속도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상원의 다수당 당수인 Lyndon.B.Johnson은 재임중 의회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서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회의록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회의, 결의안, 법안, 진정, 청원 그리고 우리 상원의 존재이유가 되는 입법활동이다. 우리 나라의 법, 관례, 사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다." 상원의원 Johnson이 지적했듯이 이 기록은 유능하고 끝까지 열심히 회의내용을 받아 적는 숙련된 공식기록원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Robert C. Byrd, The Senate, 1789~1989 : Addresses on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Senate, volume II(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1990)

Thomas C. Leonard, The Power of the Press : The Birth of American Political Reporting(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Elizabeth Gregory McPherson, "The History of Reporting the Debates and Proceedings of Congress"(Ph.D.dis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40)

F.B. Marbut, News from the Capital, The Story of Washington Reporting(Carbondale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1)

Donald A. Ritchie, Press Gallery : Congress and the Washington Correspondents(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이 자료는 미국 상원의 역사연구소에서 1990년에 발간한 소책자를 이혜정 회원이 번역하고 서현숙 회원이 교열한 글이다.

국회본회의회의록 단어사용 빈도수

유 순 태

1998년도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명사단어 사용빈도수가 집계된 「速記關聯 研究資料集」이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되었다. 협회 연구위원회의 지원으로 총 1,688쪽에 달하는 방대한 국회본회의 회의록에서 집계된 단어수(명사)는 총 22,957단어였고, 이들 단어 사용회수는 총263,107회 였다.

속기인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 연구자료집에서 일부 발췌하여 게재한다.

I. 조사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목 적

수필속기에 있어서 略字·略符는 필수적이다. 기본문자만 가지고서는 1급 수준의 속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이른바 컴퓨터속기에 있어서의 略法도 마찬가지다.

수필속기의 경우 기본문자만 가지고서는 분당 270자 이상의 속기는 불가능하고, 컴퓨터속기도 단타로는 270자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래서 분당 320자 이상의 발음을 速記, 또는 速打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略字 나 略符 또는 略法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우리말의 글자는 '자음모음' 또는 '자음(초성)+모음(중성)+자음(종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쓰기 쉬운 속기기본문자를 가장 발음빈도수가 높은 음자로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속기분자 구성법이다.

때문에 속기문자 창안이나 컴퓨터속기의 글쇄 배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 우리말의 音子使用頻度數와 使用單語頻度數를 정확히 조사분석하는 일이다.

2. 音子 사용빈도수

속기문자의 창안이나 컴퓨터속기의 글쇄 배열시 중요시되는 音子 사용빈도수와 단어사용빈도수를 정확히 조사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조사대상과 조사 시점에 따라 사용빈도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분야에 관한 자료로서 音子 사용빈도수는 과거 문교부(현재의 교육부)와 徐廷國 교수, 逸波式, 그리고 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가 조사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자료가 모두 1970년대 이전의 자료인 데다 빈도순위도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성인 母音의 경우는 문교부·서정국·일파식·연구위 모두 '葡'가 1순위로 집계한 데 반해 다른 조사자들은 '뿔'을 1순위로 집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성자음은 서정국·일파식·연구위가 '遁'을 1순위로 집계한 데 반해 문교부는 10순위로 집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사자와 조사대상이 각각 다른 탓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문교부는 각급 학교의 교과서를, 서정국 교수는 대학국어 교재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데 반해 연구위는 국회의원회의록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3. 단어사용 빈도수 조사의 필요성

속기문자를 필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자가 가장 쓰기 편한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필기 습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방향의 속기문자라 하더라도 곡선의 문자를 쓰기가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선의 문자를 쓰기가 쉬운 사람이 있고, 또 左下線의 속기문자를 쓰기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평선 방향의 속기문자가 쓰기 쉬운 사람이 있다. 컴퓨터속기의 글쇄를 타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가장 사용빈도수가 높은 글자를 어느 속기문자 또는 어느 글쇄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略字·略符 또는 略法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특정의 약자·약부 또는 약법에 어느 단어를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수필속기의 약자·약부 도는 약법에 어느 단어를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객?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수필속기의 약자·약부를 만들기 위해 15~20mm 右上曲線의 약자를 써 놓는다는지 수개의 글체를 同時打字하는 컴퓨터속기의 약법을 만들기 위해 특정의 컴퓨터 자판 글체를 정해놓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단어 가운데 어는 한 단어를 택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사용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우선 택해야 하고, 만일 사용 빈도수가 같은 단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익히기 쉬운 단어를 택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유야 어떠한 사람의 발언속도와 일치하는 속기 도는 速打를 위해서는 略字·略符 또는 略法을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의 사용빈도수를 필히 알아야 된다.

II. 조사대상과 산정기준

1. 조사대상과 투입인력

단어의 사용빈도수는 속기분야에 따라 다르고, 시대변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입법기관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사용빈도수와 사법기관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사용??도수가 다르며, 기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사용빈도수가 각기 달리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 분야를 골고루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적 제약과 투입인력 및 자원 등의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本調査研究는 1999년 4월에 시작하여 1999년 말까지 연구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필요경비의 일부를 大韓速記協會로부터 지원받아 착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범위 안에서 본조사연구를 위해 매일 평균 6시간씩 1.5명이 투입되었고, 조사대상은 1998년 제 187회 국회개회식부터 제 198회 제20차까지의 本會議會議錄 증명사에 국한시켰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회의는 총60회였으며, 그 회의록은 총1,668쪽이었다.

이 조사연구에서 국회 본회의의 회의록을 조사대상으로 택한 것은 속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이 입법기관인 국회인 데다 국회의원들의 원내발언 중에

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어휘가 두루 쓰이는 회의가 본회의이기 때문이며, 조사대상 단어를 명사로 국한시킨 것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기간과 조사인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2. 조사방법

총1,668쪽에 달하는 會議錄에 담긴 방대한 량의 단어 가운데 명사를 추출해 내고 그 명사의 사용회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컴퓨터에 그 단어를 입력해야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가장 난제로 여겼었던 이 작업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회의록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어 입력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기입력된 데이터를 입수한 조사분석팀은 가장 먼저 本會議 회차별로 명사이외의 글자와 단어 및 부호 등을 삭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쉽지 않았다.

특히 3개 이상의 명사로 구성된 複合名詞를 몇 개의 명사로 분류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國名·人名·地名도 명사 사용빈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쪽' 합리화' '생산성' 등의 '쪽' '화' '성'과 같은 접미사가 붙은 명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분석팀원간에도 견해가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大韓速記協會 研究委員會와의 협의 끝에 어휘 사용빈도수의 조사목적이 "현재 쓰이고 있는 ?필속기법의 略字·略符와 컴퓨터속기의 略法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명사 사용빈도수를 산출하게 되었다.

3. 명사사용빈도수 산정기준

- 접미사가 붙은 명사는 접미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명사로 산정한다.
예) 단계별, 다자간, 마련중, 동서간, 매입시, 번씩, 번째, 생산성, 생산적, 내실화 등
- 접두사가 붙은 명사는 접두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명사로 산정한다.
예)무이자, 무분별, 대공항 등
- 두개 이상의 명사로 구성된 상용 복합명사는 복합명사 자체를 한 단어로 산정함과 동시에 그 복합명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명사도 한 단어로 산정한다.

예) 노동법규→노동법규, 노동, 법규

국민투표→국민투표, 국민, 투표

- 의존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등도 명사로 산정한다.
- 지명, 인명, 상호, 학교명, 사설단체명 등은 명사로 산정하지 않는다.
- 명승지는 명사로 산정한다.

예) 금강산, 불국사 등

- 道名과 지역군, 언론사명은 명사로 산정한다.

예) 호남, 영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 정부부처,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은 명사로 산정한다.
- 정당, 공익사회단체명은 명사로 산정한다.
- 복합명사 형태를 취한 정당명은 하나의 명사로 산정한다.

예)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 인명이 붙어 상용단어로 쓰이는 고유명사는 인명이 붙은 상태로 하나의 명사로 산정한다.

예)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르위스키사건 등

- 수사가 붙은 명사는 수사를 제외하여 하나의 명사로 한다.

예) 세 사람 → 사람

한 개 → 개

Ⅲ.조사연구의 개요와 효용가치

本調査研究 결과 1998년 1년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부장관 등 모든 발언자가 발언한 명사 단어수는 총 22,957개였고, 그 단어의 쿼 사용회수는 총263,107회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에서 나타난 총 22,957개의 명사 단어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3,926회 사용된 '의원'으로 명사 단어 총사용회수 대비 1.49%를 차지하여 1순위 기록했고, 다음으로 3,589회 사용된 '정부'가 2순위, 3,994회 사용된 '우리'가 3순위, 1,730회 사용된 '생각'이 4순위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록은 곧 다음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명사단어 사용빈도수 순위인 '둘' '렉' '값' 順位와도 일치한다.

사용회수				사용단어			
순위	자음	회수	비율(%)	순위	자음	단어수	비율(%)
1	ㅇ	51,707	19.65	1	ㅈ	4,029	17.55
2	ㅈ	50,527	19.20	2	ㅇ	3,757	16.37
3	ㅅ	36,211	13.76	3	ㅅ	3,344	14.57
4	ㄱ	24,230	9.74	4	ㅂ	2,342	10.20
5	ㅂ	22,990	9.21	5	ㄱ	2,157	9.40
6	ㅎ	19,888	7.56	6	ㅎ	1,813	7.90
7	ㄷ	19,313	7.34	7	ㄷ	1,314	5.72
8	ㅊ	12,837	4.88	8	ㅊ	1,275	5.55
9	ㅁ	12,087	4.59	9	ㅁ	1,123	4.89
10	ㅞ	5,514	2.10	10	ㅞ	716	3.12
11	ㅍ	4,721	1.79	11	ㅍ	543	2.36
12	ㄴ	2,146	0.82	12	ㄴ	331	1.44
13	영어	494	0.19	13	영어	78	0.34
14	ㅋ	230	0.09	14	ㅋ	73	0.32
15	ㄹ	212	0.08	15	ㄹ	62	0.27
계		263,107	100%	계		22,957	100%

(사용단어 분류 및 사용회수는 단어 첫글자 초성 기준)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용단어'의 '단어수'는 명사단어의 첫글자 初聲에 해당하는 단어를 합산한 것이며, '사용회수'의 '회수'는 같은 단어가 여러번 사용된 회수를 말한다. 예컨대 「의원, 정부, 우리, 생각, 등, 말씀, 이, 정책, 일, 것, 우리, 정부」의 경우 '둘'자음 단어수는 의원·우리·이·일 등 4개이고, '둘'자음 단어 사용회수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더 추가되어 5회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本調査研究資料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두말할 것 없이 속기 관련 분야이다.

速記術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속기학자는 속기문자 연구에, 국회나 법원·지방의회 등에서 속기실무를 수행하는 속기사는 자신이 쓰고 있는 略字·略符·略法연습에, 컴퓨터속기 프로그램 및 기기제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略法體系化에 이 자료를 각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이 조사연구 자료가 완벽하게 조사분석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세 가지 이상의 명사가 나열된 복합명사의 경우 어디까지를 복합명사의 범주에 넣느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연구에 있어서 단 하나의 명사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속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속기인으로서 잠부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번 조사연구에서 집계된 1998년 국회본회의 명사단어 사용빈도수이다. 다음<표>의 비율(%)은 총단어(명사)사용회수 263,107회에 대한 비율이다.

(속기문화연구소 대표)

◆ 1999년 국회본회의 회의록 단어(명사) 사용빈도수 ◆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1	의원	3926	1.492
2	정부	3589	1.364
3	우리	2994	1.138
4	생각	1730	0.658
5	등	1718	0.653
6	말씀	1526	0.588
7	이	1500	0.570
8	정책	1499	0.570
9	일	1464	0.556
10	것	1459	0.555
11	장관	1448	0.550
12	조정	1369	0.550
13	문제	1335	0.507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14	분	1333	0.507
15	위원회	1234	0.469
16	도입	1192	0.453
17	지원	1116	0.424
18	추진	1082	0.411
19	월	1035	0.393
20	정치	1032	0.392
21	답변	1002	0.381
22	의장	981	0.373
23	질문	965	0.367
24	대통령	910	0.346
25	경제	902	0.343
26	지금	893	0.339
27	위기	883	0.336
28	현재	853	0.324
29	사업	852	0.324
30	다음	832	0.316
31	앞	822	0.312
32	북한	765	0.291
33	국회	727	0.276
34	국민	711	0.270
35	은행	688	0.261
36	제도	670	0.255
37	이것	658	0.250
38	쏟나라당	656	0.249
39	지역	647	0.246
40	지적	645	0.245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41	총리	640	0.243
42	본의원	632	0.240
43	말	628	0.239
44	예산	627	0.238
45	시장	614	0.233
46	대	613	0.233
47	자금	601	0.228
48	산업	584	0.222
49	사실	582	0.221
50	점	573	0.218
51	기업	569	0.216
52	선거	562	0.214
53	수출	560	0.213
54	재정	554	0.211
55	때문	536	0.204
56	보고	536	0.204
57	사건	533	0.203
58	외환	522	0.198
59	투자	520	0.198
60	사람	514	0.195
61	오늘	513	0.195
62	사회	508	0.193
63	책임	508	0.193
64	의사	506	0.192
65	상황	506	0.192
66	당	503	0.191
67	정권	498	0.189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68	회의	486	0.185
69	실업	483	0.184
70	이상	472	0.179
71	대책	455	0.173
72	존경	451	0.171
73	방안	447	0.170
74	중소	446	0.170
75	운영	436	0.166
76	의원	429	0.163
77	동료	427	0.162
78	지방	419	0.159
79	실업대책	418	0.159
80	법	417	0.158
81	수사	414	0.157
82	한국	414	0.157
83	행정	407	0.155
84	합의	406	0.154
85	금융	404	0.154
86	원	399	0.152
87	결과	396	0.151
88	구조	395	0.150
89	주의	394	0.150
90	개정	393	0.149
91	국가	389	0.148
92	법률안	389	0.148
93	선배	388	0.147
94	명	380	0.144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95	단체	368	0.140
96	정보	357	0.136
97	년	355	0.135
98	때	354	0.135
99	협력	350	0.133
100	인사	350	0.133
101	출신	350	0.133
102	투표	347	0.132
103	중소기업	344	0.131
104	구조조정	343	0.130
105	야당	342	0.130
106	안보	340	0.129
107	이유	335	0.127
108	관련	331	0.126
109	저	327	0.124
110	특별	326	0.124
111	위원장	326	0.124
112	발언	324	0.123
113	일정	323	0.123
114	자리	323	0.123
115	안정	322	0.122
116	최근	316	0.120
117	부실	315	0.120
118	동안	314	0.119
119	요구	310	0.118
120	진행	309	0.117
121	동료의원	308	0.117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122	무엇	305	0.116
123	발생	305	0.116
124	심사	304	0.116
125	개혁	303	0.115
126	체제	296	0.113
127	나라	296	0.113
128	경우	294	0.112
129	필요	292	0.111
130	해결	288	0.109
131	정의	287	0.109
132	평가	287	0.109
133	국무총리	287	0.109
134	이후	286	0.109
135	협의	283	0.108
136	여야	283	0.108
137	이번	282	0.107
138	정도	279	0.106
139	조사	279	0.106
140	신용	275	0.105
141	세계	273	0.104
142	마련	272	0.103
143	지구	271	0.103
144	처리	268	0.102
145	사항	268	0.102
146	대한	266	0.101
147	사정	264	0.100
148	국무	263	0.100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149	보증	257	0.098
150	사태	257	0.098
151	확대	257	0.098
152	확보	257	0.098
153	과정	256	0.097
154	외교	255	0.097
155	대북	255	0.097
156	피해	255	0.097
157	입장	255	0.097
158	외환위기	255	0.097
159	차원	251	0.095
160	통일	249	0.095
161	문화	249	0.095
162	활동	247	0.094
163	수준	247	0.094
164	이제	247	0.094
165	내용	245	0.093
166	미국	245	0.093
167	기관	245	0.093
168	이해	244	0.093
169	시설	241	0.092
170	시간	240	0.091
171	의결	234	0.089
172	원칙	232	0.088
173	주장	231	0.088
174	당시	230	0.087
175	채권	230	0.087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176	환경	229	0.087
177	선포	228	0.087
178	제안	228	0.087
179	발전	226	0.086
180	현실	225	0.086
181	부의장	223	0.085
182	판단	222	0.084
183	민주	222	0.084
184	시대	222	0.084
185	여기	221	0.084
186	여당	221	0.084
187	부분	220	0.084
188	일부	216	0.082
189	조치	216	0.082
190	대상	216	0.082
191	수입	215	0.082
192	발표	215	0.082
193	원인	215	0.082
194	의사일정	215	0.082
195	정당	210	0.080
196	동	209	0.079
197	우선	208	0.079
198	시행	207	0.079
199	자치	205	0.078
200	극복	205	0.078
201	수정	205	0.078
202	운동	204	0.078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203	가치	204	0.078
204	회복	204	0.078
205	지난	203	0.077
206	수해	202	0.077
207	외채	202	0.077
208	지속	202	0.077
209	협조	202	0.077
210	민간	200	0.076
211	부처	199	0.076
212	방향	199	0.076
213	감사	199	0.076
214	대표	198	0.075
215	방송	196	0.074
216	노력	196	0.074
217	전	195	0.074
218	제출	195	0.074
219	저희	194	0.074
220	그	193	0.073
221	차관	193	0.073
222	행위	192	0.073
223	대기업	192	0.073
224	퍼센트	190	0.072
225	실업자	190	0.072
226	보장	189	0.072
227	실정	186	0.071
228	해소	186	0.071
229	보험	186	0.071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230	헌법	185	0.070
231	안기부	185	0.070
232	효과	185	0.070
233	본회의	185	0.070
234	달러	184	0.070
235	대출	184	0.070
236	역사	183	0.070
237	중	183	0.070
238	조직	182	0.069
239	준비	182	0.069
240	회사	180	0.068
241	활성화	180	0.068
242	포함	180	0.068
243	정리	179	0.068
244	재원	177	0.067
245	추가	177	0.067
246	실시	177	0.067
247	모두	176	0.067
248	시작	175	0.067
249	언론	175	0.067
250	한편	174	0.066
251	관계	173	0.066
252	촉진	173	0.066
253	외국인	173	0.066
254	현대	173	0.066
255	중심	173	0.066
256	양해	173	0.066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257	자유	173	0.066
258	임명	173	0.066
259	의견	171	0.065
260	부담	170	0.065
261	요청	169	0.064
262	퇴출	169	0.064
263	자기	168	0.064
264	정치권	168	0.064
265	문	168	0.064
266	설명	168	0.064
267	하루	168	0.064
268	유지	167	0.063
269	법안	167	0.063
270	법무	166	0.063
271	외국	166	0.063
272	종합	165	0.063
273	여러가지	164	0.063
274	중요	164	0.063
275	힘	164	0.063
276	무역	164	0.063
277	부정	163	0.063
278	여건	163	0.063
279	제고	162	0.063
280	소속	162	0.063
281	증가	162	0.063
282	체계	159	0.060
283	조성	159	0.060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284	소득	158	0.060
285	재벌	157	0.060
286	현장	157	0.060
287	법률	156	0.059
288	성공	156	0.059
289	최선	155	0.059
290	의혹	154	0.059
291	부총일	153	0.058
292	전망	153	0.058
293	상징	153	0.058
294	연구	153	0.058
295	방법	153	0.058
296	부문	152	0.058
297	수립	152	0.058
298	출범	152	0.058
299	역할	152	0.058
300	법무부	151	0.057
301	여부	149	0.057
302	의지	147	0.056
303	적극	146	0.055
304	시민	146	0.055
305	실패	146	0.055
306	상태	145	0.055
307	부도	145	0.055
308	변화	145	0.055
309	의미	145	0.055
310	수행	145	0.055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311	부탁	144	0.055
312	후보	144	0.055
313	집행	144	0.055
314	세기	143	0.054
315	햇볕	143	0.054
316	환란	142	0.054
317	전략	142	0.054
318	사전	142	0.054
319	비율	142	0.054
320	제시	142	0.054
321	신청	141	0.054
322	승인	140	0.053
323	동의	139	0.053
324	보호	139	0.053
325	제기	138	0.052
326	재경부장관	138	0.052
327	회담	138	0.052
328	민족	138	0.052
329	방지	138	0.052
330	계획	137	0.052
331	확인	137	0.052
332	직접	137	0.052
333	성장	137	0.052
334	참여	136	0.052
335	발행	136	0.052
336	재정경제부장관	136	0.052
337	인력	135	0.051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338	자신	134	0.051
339	최대	134	0.051
340	돈	134	0.051
341	완화	134	0.051
342	인수	133	0.051
343	인식	133	0.051
344	벤처	132	0.050
345	삼의	132	0.050
346	효율	132	0.050
347	불법	132	.0050
348	의석	131	0.050
349	비용	130	0.049
350	불구	130	0.049
351	작업	130	0.049
352	지시	130	0.049
353	무	130	0.049
354	규정	129	0.049
355	자본	129	0.049
356	희망	129	0.049
357	초래	129	0.049
358	전체	128	0.049
359	부족	128	0.049
360	생산	128	0.049
361	삼각	127	0.048
362	자산	127	0.048
363	통신	127	0.048
364	예산안	126	0.048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365	상임	126	0.048
366	법무부장관	125	0.048
367	안전	125	0.048
368	상환	125	0.048
369	이의	124	0.047
370	민주주의	124	0.047
371	현상	124	0.047
372	보도	124	0.047
373	가결	124	0.047
374	영향	123	0.047
375	자율	123	0.047
376	여성	121	0.046
377	업무	121	0.046
378	희생	121	0.046
379	개입	121	0.046
380	통일부	120	0.046
381	성과	120	0.046
382	비리	120	0.046
383	불안	119	0.045
384	협정	119	0.045
385	제공	119	0.045
386	변경	119	0.045
387	폐지	118	0.045
388	평화	118	0.045
389	목표	118	0.045
390	기능	118	0.045
391	사용	117	0.044

순위	단어	빈도수	빈도율
392	복지	117	0.044
393	용의	116	0.044
394	절차	116	0.044
395	환율	116	0.044
396	결정	115	0.044
397	육성	115	0.044
398	청와대	115	0.044
399	설치	115	0.044
400	해외	115	0.044
401	반영	115	0.044
			(이하생략)

■ 협회동정

♣ 지대섭 회장

- 4월23일부터 광주MBC 칼럼니스트로 선정
- 5월27일, KBS 길종성의 쟁점토론회 토론자로 참석(주제 : 국회의원 중 선구제)
- 한·일의원연맹 양국 합동간사회의에 한국측 상임간사로 참석(5.29~5.31)
- 7월4일, 지리산 송원리조트에서 열린 세무대학회에서 '한국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
- 9월9일, 광주 전남대학 사회교육원 21C지도자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진로를 진단한다'를 주제로 특강
- 9월9일, 전남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녹화
- 11월5일~11월7일(2박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한국측 간사자격으로 참석

♣ 권용태 부회장

- 5월2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北風에게」 시집출판기념회 개최
- 7월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 9월12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
- 12월10일, 제7회 「시와 시론」 본상 수상

♣ 이사회 소식

- 제180차 이사회(1999.1.21)
제32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1998년도 결산에 관한 건,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 임원개선의 건 논의
- 제181차 이사회(1999.3.31)

임원·부장 개선의 건, 1999년도 사업계획 검토의 건, 인터스테노 참가 결정의 건 등 보고

- 제182차 이사회(1999.6.29)

제7회 속기학술세미나 및 속기경기대회 결과보고, 의회속기사부(IPRS) 참가의 건, 협회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건 등 보고

- 제183차 이사회(1999.9.27)

의회속기사부 및 NCRA참가에 관한 보고와 1999년도 잔여사업에 대해 협의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1999년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1998년도 결산과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협회운영과 관련된 정관 개정의 건, 임기만료된 임원 및 공석중인 임원 선임의건을 안건으로 하여 성황리에 마침

새로 선임된 의원에는 신세화 부회장이 유임되었고, 이사장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 재직중인 최황수 회원이 추대되었으며, 국제이사에는 이승철 회원이, 감사에는 김선희·채강희 회원이 각각 선임됨.

♣원로회원 모임

신임 최황수 이사장 주최로 1999년 3월11일 여의도 홍보석에서 상견례를 겸한 원로회원 모임이 있었음. 김진기 고문 등 총 13인이 참석하여 이사회의 활성화 방안과 대한속기협회의 협회 단일방안에 대하여 논의

♣제3회 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 참가

1999년 6월10일부터 6월1

3일까지 한국종합전시관(KOEX)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공동주최한 제3회 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에 이주성 회원이사와 안기철 회원이 참가하여 국회에서 발간된 회의록에 대하여 일반 국민 누구나 조회 및 검

색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선보임

♣ 제7회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1999년 6월12일부터 6월13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양지과인리조트에서 개최됨.

우리 나라 기록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속기계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다가오는 21세기 기록문화의 과제와 그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주제하에 중앙대학교 김호일 교수가 '기록문화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정호영 수석전문위원으로 부터는 법률안을 중시을 '국회에서의 의안처리과정'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속기과에 근무하는 홍기표 회원으로부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강의를 있었음

♣ 1999년도 서울국제컴퓨터문화축제 참가

1999년 7월24일부터 7월29일까지 6일간 한국종합전시관(COEX)태평양관 제1전시장에서 MBC문화방송 주최로 개최된 '99 서울국제컴퓨터문화축제에 안기철 회원과 이봉선 회원이 참가하여 국회에서 발간된 회의록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검색 가능한 국회회의록시스템과 입법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전시, 시연

♣ 미국속기연맹 100주년 기념행사 및 IPRS회의 참석

1999년 7월25일부터 8월8일까지 14박15일 일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열린 NCRA(미국속기연맹) 100주년 기념행사 및 IPRS회의에 김창진 회원, 김영중 회원, 김미라 회원, 신종식 회원이 참석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을 들러 일본속기협회 이사장, 부이사장, 중의원 속기사 등을 만나서 두 나라 속기계의 친목도모와 의견을 교환함.

♣ **승진·축하합니다.**

- 강종원(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 이사관, 감사관(99.5.4)
최황수(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 이사관, 윤리특별위원회전문위원(99.5.4)
황인하(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 이사관, 기록편찬국장(99.5.4)
박정호(국회사무처) : 사무관 → 서기관, 속기1과 담당(99.5.4)
황은화(국회사무처) : 속기주사보 → 속기주사(99.5.12)
성천영(국회사무처) : 속기1과장에서 기록심의관으로 승진(2000.1.1)
김선옥(국회사무처) : 속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2000.1.1)
엄의숙(국회사무처) : 속기주사보에서 속기주사로 승진(2000.1.1)
신연희(국회사무처) : 속기주사보에서 속기주사로 승진(2000.1.1)

♣ **전보·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 송기철(국회사무처)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전문위원(이사관)
→ 동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직무대리
김기영(국회사무처) : 행정자치전문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전문위원(99.5.4)
최황수(국회사무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법심의관
→ 윤리특별위원회전문위원(99.5.4)
이승철(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99.5.4)
이주성(국회사무처) : 속기1과3담당 → 속기1과2담당(99.5.4)
이경식(국회사무처) : 속기1과4담당 → 속기1과3담당(99.5.4)
송기철(국회사무처)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전문위원(이사관)
→ 국회사무처(99.9.1)
황인하(국회사무처) : 기록편찬국장에서 국회사무처로 전보(2000.1.1)
김치원 부이사관 : 국방대학원에서 법제심의관으로 전보(2000.1.1)
박대성 서기관 : 국방대학원에서 재정경제위 입법조사관으로 전보(2000.1.1)

홍순관(국회사무처) : 속기2과장 → 속기1과장(2000.1.1)
 신희동(국회사무처) : 속기서기관 → 속기2과장(2000.1.1)
 박정호(국회사무처) : 속기1과1담당 → 편집담당(2000.1.1)
 이주성(국회사무처) : 속기1과2담당 → 속기1과1담당(2000.1.1)
 손재욱(국회사무처) : 속기2과3담당 → 속기1과2담당(2000.1.1)
 김창진(국회사무처) : 속기2과4담당 → 속기2과2담당(2000.1.1)
 이경식(국회사무처) : 속기1과4담당 → 속기2과3담당(2000.1.1)
 하양배(국회사무처) : 총괄담당관 → 총무과장(2000.1.1)
 장숙경(국회사무처) : 사서서기관 → 열람봉사과장(2000.1.1)

♣ 퇴직·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현(국회사무처 속기1과) : 명예퇴직(99.4.2)
 송효근(경상북도의회) : 퇴직(99.4.6)
 선재영(대구광역시의회) : 퇴직(99.4.24)
 송기철(국회사무처) : 전문위원 정년퇴직(99.12.31)
 허광현 회원 : 명예퇴직(99.12.31)

♣ 교육·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국회사무처) : 법제과정(관리자)(99.5.17~5.21)
 손재욱(국회사무처) : 예산과장(관리자)(99.5.24~5.28)
 신연희(국회사무처) : 법제과정(실무자)(99.6.7~6.11)
 황은화(국회사무처) : 법제과정(실무자)(99.6.7~6.11)
 신희동(국회사무처) : 해외(미국)연수(99.12.28~2000.1.7)

♣ 결혼·축하합니다

이경숙(국회사무처 속기1과) : (99.4.17)
 임선애(경남 고성군의회) : (99.5.2)
 서명순(국회사무처) : (99.,11.28)
 황은화(국회사무처) : (99.12.18)

♣수상·축하합니다

- 김선옥(국회사무처 속기2과) : 대통령 표창(99.1.2)
고석광(국회사무처 속기1과) : 국회의장 표창(99.1.2)
간찬기(국회사무처 5속기1과) : 국회사무총장 표창(99.1.2)
송혜경 회원 : 제10회 '책과인생' 현상공모 수필당선(99.3)
이덕구 회원 : 국우회주관(제10회) 제1/4분기 바둑대회 2급 준우승(99.3.27)
권영찬 회원 : 국우회주관(제10회) 제1/4분기 바둑대회 6급 우승(99.3.27)
김진기 회원 : 국우회주관(제10회) 제1/4분기 바둑대회 6급 4위(99.3.27)
안인영 회원 : 국우회주관(제10회) 제1/4분기 바둑대회 8급 3위(99.3.27)
박순필(국회사무처) : 국회공무원테니스대회 A조 복식준우승(99.4.17)
이준태(국회사무처) : 국회공무원테니스대회 A조 단식3위(99.4.17)
박병윤(국회사무처) : 국회개원51주 기념식 모범공무원상(99.5.31)
김정아(국회사무처) : 국회개원51주년 기념식 사무총장상(99.5.31)
박순필(국회사무처) : 대통령 표창(2000.1.4)
김채영(국회사무처) : 국회의장 표창(99.12.28)
이규진(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총장 표창(99.12.28)

♣파견,출강,발령·수고하세요

- 황은화(국회사무처) : 대한민국헌정회 파견(99.6.1~2000.5.31)
전난영 회원 : 충청남도 당진 합덕초등학교 발령(99.8.20)
유순태 회원 : 8월부터 성남기능대학에서 '대학국어' 겸임교수 출강

♣개업,창립·발전을 기원합니다

- 송효근, 선재영 회원 : (주) 한백C&D 설립(정보서비스 전산업)(99.4)
안정근 회원 : 청각장애인 및 난청자를 위한 '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창립 기념식(99.7.7)

Alt-X를 하기 전에

바쁘다 바빠 하며 살다보니
어느덧 20세기는 멀어져 가고
새천년, 21세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네.
2000년엔 파란 해가 뜨는 건 아닐텐데……

-仙-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처럼
36호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많은 사연들이
한 권의 속기계에 모두 묻혀버린 듯하다.
다음 호는 정말 잘해 봐야지.

-美-

모든 어두운 것들을 덮어 버리는 듯 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새천년, 새출발, 새생각……
속기계 파이팅!

-賢-

기사작성을 위해 옛날 <속기계>를 뒤적이다가,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동안 협회 홍보일을 맡으면서 <속기계>를 두세 번은 훑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 보는 기사가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또 어려워서 안 읽혔던
기사가 왜 그리 재미있게 읽히는지……
표현은 안 하지만 다들 속기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구나라는 걸 발
견한 건 좋은 수확이었다.

-時-

속기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淑-